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인구위기 시대, 사회적경제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2024.11.5.(화) 10:00 - 12:00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관

국회사회혁신포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후원

행복나래, 농협대학교 희망농업협동포럼

협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목차

## 환영사/축사

---

(환영사)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서울 은평구청장	01
(축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의원	03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05

## 발제

---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07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7
이강익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사례발표

---

(주거) 주거와 자녀 돌봄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37
송아영 위스태이지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청년 일자리) 청년의 실험, 지역의 미래	44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이사장	
(교육) 뿌리 내리는 청년, 꽃피는 농촌	67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대표	

## 토론

좌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85
민영 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상임이사	86

# 프로그램

사회자: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시 간	내 용	
10:00-10:10	오프닝	진행 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li><li>•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li><li>•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li></ul>
10:10-10:40	발제 1	<b>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li></ul>
	발제 2	<b>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강익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li></ul>
10:40-11:10	사례발표1	<b>주거   아이와 함께 자라는 마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송아영 위스테이지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li></ul>
	사례발표2	<b>청년 일자리   청년의 실험, 지역의 미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이사장</li></ul>
	사례발표3	<b>교육   뿌리 내리는 청년, 꽃피는 농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대표</li></ul>
11:10-12:00	종합토론	<b>좌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li></ul> <b>토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 계명대학교 겸임교수</li><li>• 민영 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상임이사</li></ul>

환영사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서울 은평구청장

---

## 환영사

---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제23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저출생’으로 대변되는 인구감소 현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성장만을 좇아 달려오다 보니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일에는 그만큼 관심이 줄어든 탓입니다.

비록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역의 풀뿌리 현장에서 공동체의 번영

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애써 온 주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을 꿈꿔왔고, 서로 간에 연대를 실천하며 위기를 극복해 오셨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시스템이기에, 현재의 인구위기 시대에 더없이 중요한 위상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경제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 주신 사회적 경제인과 활동가분들께서 현장의 사례들을 공유해주십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한다거나, 지역주민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된 계기 등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한 발걸음해주신 연사분들과 좌장,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자리에 함께해주신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복기왕 의원님,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 의원이신 김영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포럼 개최로 매번 애써주시는 한겨레신문사 최우성 사장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봉현 원장님, 그리고 한겨레 가족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협의회도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갈 지역의 미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

축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의원

---

## 축사

---



김영배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의원(서울 성북갑)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

〈국회 사회혁신포럼〉 대표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총 6개의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단체의 주관으로 열리는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열리는 정책포럼은 “인구위기 시대, 사회적경제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앞에는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지역 공동체 붕괴,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경제 침체라

는 악순환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송원근 교수님과 이강익 센터장님께서 지역 회복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송아영 이사장님, 권기효 이사장님, 한석주 대표님께서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주시므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회 사회혁신포럼>과 함께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 김영배

축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 축사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충남 아산시갑)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봉현 원장님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경민 상임대표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이의영 공동대표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님과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현장의 활동가와 종사자분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저출생,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UN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제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상식의 영역이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해 4월 UN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2년 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를 공식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조직은 와해 되고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며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 복기왕

발제

#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인구위기 시대,  
사회적경제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송원근(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 목차 CONTENTS

-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선들
- 2 복합위기와 사회적경제 3.0
- 3 회복탄력성 + Common Good
- 4 무엇을? 어떻게?



# 0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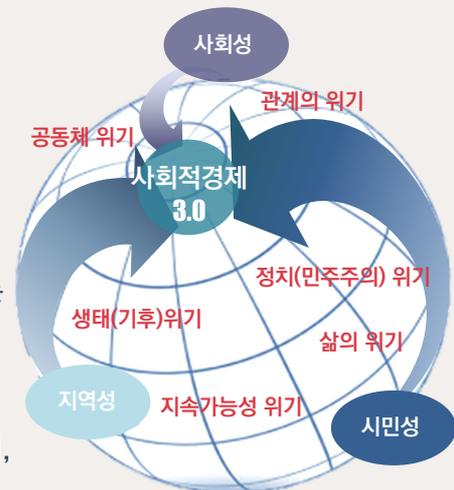
- 질 낮은 노동의 재생산, 낮은 가치 생산 분야를 확산?
- 사회적경제기업이 갖는 특성때문에 성장에는 제약이 많다?

사회적경제기업 특성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들
사회적 가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강조에 따른 정체성 상실, 동형화 현상</li> <li>• 기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영리기업들에 의한 도구화 현상</li> <li>• 사회적경제의 포획 우려 증가</li> </ul>
이윤배분에 대한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치 생산부문이라는 인식 강화, 투자 매력 없는 기업이라는 인식, 자금조달의 어려움. 신규투자 여력 감소로 인한 규모 확대 제약</li> <li>• 이윤(소득)청구권 외 자원배분 등 다른 의사결정 상의 기회주의나 관련 비용 통제 불가능</li> </ul>
다중 이해당사자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간 조정에 따르는 비용 발생</li> <li>•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비용, 기업가정신 발휘 제약</li> <li>• 조정 불가능할 경우 영향력 비용 발생</li> <li>•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할 경우 의사결정권의 재집중화 현상으로 민주주의 원리 훼손 가능성</li> </ul>
사회적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필요 발굴을 위한 내부 투자 여력 감소</li> <li>• 내부 지출이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기업 장기적 역량 감소</li> </ul>



# 02 복합위기와 사회적경제 3.0

- 사회적경제 1.0
  -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사회적성을 강조, 진행, 법과 제도의 마련, 활성화 정책
  - 호혜, 연대, 협력, 신뢰 등 가치 강조
- 사회적경제 2.0
  - 2010년 이후 지역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다양화
  - 지역 주도, 지역 자율성, 민관협력거버넌스, 지역기반기업 등 다양한 지역전략과 담론
- 사회적경제 3.0
  - 시민성의 영역은 덜 강조했고 앞으로 강조해야 할 방향, 시민성 복원이 핵심
  - 왜? : 제도화의 모럴해저드, 개별화와 사회적딜레마 위기, 능력주의, 민주주의 위기, 정체성의 정치(포퓰리즘), 혹은 공동선의 부재(혹은 집단 정체성 강화)
  - 물론 이 세 가지 구분은 발전 단계로서 의미는 아니고, 서로를 전제하면서, 또한 각각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의미





# 02 복합위기와 사회적경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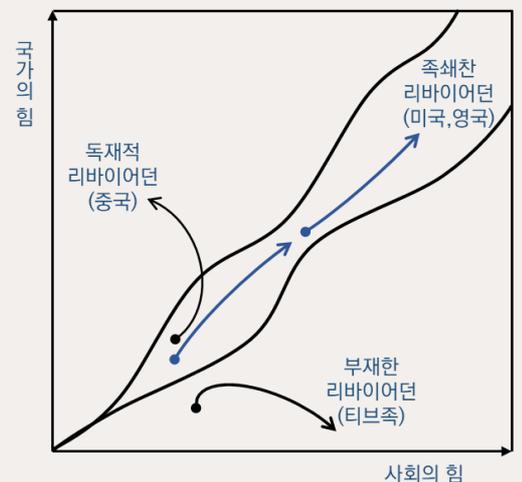
- 사회성을 상실한 독립성을 상실한 개인 시민들의 다양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욕구와 필요들을 사회적경제방식으로 충족시킨다는 의미
  - 사회의 복원, 관계의 복원,
    - 시장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시민으로서 필요를 충족, 효능감과 공동체 소속감 유대
    -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
-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제품과 서비스 생산 참여를 통해 사회적 최소한을 제공. 이 과정에서 양질의 사회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자유와 책임을 부과(포용성 확대) ② 사회적 비용(social cost)부담을 통해 사회적 권리 침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 **정체성 정치 견제**
- 지역성의 상실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꿈. 지역 잠재력과 회복력 복원-**시민권력의 물적 기반(사회적통제의 물적기반)**
  - 지역순환시스템 구축, 공유지(communs)와 같은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 ① 영리기업들의 윤리·투명·환경 책임(responsibility)을 요구, 확산할 뿐 아니라 일상화 된 고용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기업들의 단기주의를 규율 ②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내재화하고 규범화 -**CSR교정, 사회적통제 요구 증대**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확보-**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 02 복합위기와 사회적경제 3.0

## ▪ 시민성의 의의

- 1)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의 문제점 극복(실용적)
- 2) 시장의 힘 제어, 공동체와 국가 사이 균형, 족쇄찬 리바이어던
- 3) 사회적경제조직(중간지원조직, 기업, 시민사회단체, NGO, NPO 등)의 설명 책임, 시민적 지지 획득
- 4) 우리 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지방정부의 구속적 질서(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인간 중심 운영, 규범에 의한 타인에 대한 억압적 질서로부터 해방, 좋은 삶과 좋은 사회로



# 02 복합위기와 사회적경제 3.0



“사회성을 상실한 공동체, 불평등과 능력주의에 의해 변형·왜곡되고 약화된 시민들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자유, 거대 과점체들에게 포획당한 국가와 분열과 배제에 기반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 현재의 시스템은 시장을 통한 개인적인 대처가 더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또 시장적 해법 발견에 능통해진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는 시민들을 더 의존적인 개체로 만들면서도 참여와 속의, 자율과 자기통제, 호혜와 협력, 책임과 사회적 자유 같은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시민적 덕성이 발휘될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여러 우려와 다른 처방에 대한 다양한 해법 제시는 사회의 집합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 집합적 행동 양식의 하나가 사회적경제라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집단적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시민성의 복원이다. 구(舊) 자유주의 과제를 여전히 미완의 과제(‘지체된 근대’)로 안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시민성의 ‘복원’보다는 시민성의 ‘확보’가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근대 시민혁명은 개인 권리의 양도에 의한 국가 혹은 정치권력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지배에 대항하는 반작용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게다가 분단 모순까지 같이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시민으로서 자기 형성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성급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국가나 정부 시스템에 의존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정부에 기대하고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의 상실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권력을 교체하기도 했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17-18쪽)

참고: “사회적경제 3.0: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41권 제2호 (2023. 6)

# 02 복합위기와 사회적경제 3.0



	사회성의 복원	지역성의 복원	시민성의 복원
시장경제 위기	사회성의 상실	공동체의 약화와 변형/ 지역소멸	시민성의 기반 파괴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성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li> <li>비즈니스 확대에 의한 정체성 위기극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형된 공동체의 공동선?</li> <li>로컬리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PPP)</li> <li>로컬비즈니스와 규모 경제?</li> <li>공동체의 개방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선의 추구(사회성과 지역성을 복원하는)는 어떻게?</li> <li>디지털전환, 생태 전환에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떻게?</li> <li>윤리적 소비 극복?포퓰리즘과 능력주의 극복</li> </ul>
개인	호혜 협력과 연대 신뢰	시민의식, 소비윤리를 넘어? 공동체 소속감과 공동선 커뮤니티 앙트러프레너십	시민적 덕성, 책임, 절제와 윤리적 소비, 공감(Empathy), 공존 생산 윤리, 일의 존엄성
기업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부정과 긍정적 요소들 사회적책임	지역의 필요를 발굴 근린서비스제공 조직 로컬지역기반 기업 지역관리기업 등	인간중심의 기업경영 (사회적 비용 부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명책임 투명성 등 윤리적 책임
정부	사회적자본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 보충성의 원리 등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대응	민관파트너십(PPP) 공동생산(co-production)	시민권력(파트너국가) 지역순환경제/시민경제 자율과 의존의 딜레마 해결



# 03 회복탄력성(Resilience)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지속가능성은 균형이론에 근거하여 현존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구
- 지속가능성의 한계
  - 경제, 사회, 환경적 목표간 균형, 우선 순위 등을 고려, 포괄적 보편적 솔루션 어려움
  - 탄소 배출 감소나 자원 효율성 증진에 초점. 그러나 사회 정의, 형평성, 문화적 고려 사항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차원을 간과할 위험
  - 지속가능성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이를 구체적 행동, 정책으로 전환이 어려움
  - 사업이 사회와 자연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시스템 사고의 부재)
  - 미래 세대 요구 고려를 목표로 하나 단기적 사고와 즉각적인 경제적 압박에 의해 제약
  - Greenwashing으로 인한 신뢰와 효과 훼손
  - 지속가능성 관련 우선순위, 전략 및 책임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부족
  - 공동의 이해에 대한 관심이 없음



# 03 회복탄력성(Resilience)

## 회복탄력성(Resilience)

-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처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위협 요인을 줄이는 것을 추구,
-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회복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에서 중기적 대응과 주류 경제적 이익의 회복을 우선시.
- **community resilience**: 지역 사회가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과 동시에 자율 조직화와 대중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초 지식과 창의적인 솔루션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 것(Ilcheong Yi, 2023,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61)
- **약점**: 적응 회복에 중심, 예방적 접근방식은 부족, 불평등이나 형평 등이 항상 우선일 수 없음, 변형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간과
- 지속가능성 포함해 커뮤니티 회복력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주요 내용

### 재생(Rege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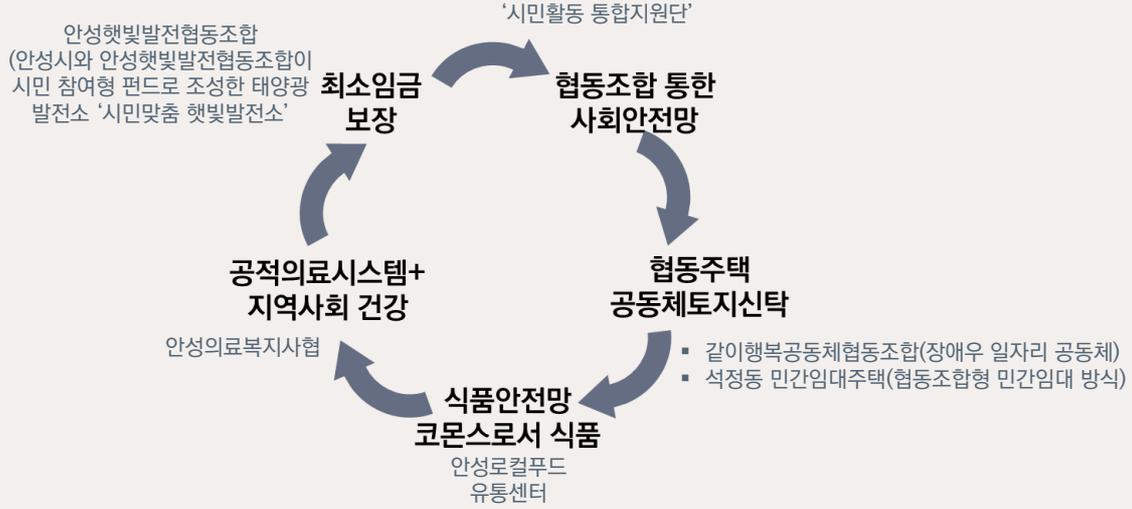
- 재생은 재난으로 이어지는 원인 해결에 초점.
- 자연 및 사회 시스템 모두에서 **Common Good**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
- 긴급 필요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회복/향상 강조

종류	주요 내용
충격으로부터 되튀어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이 충격 이전의 상태 또는 궤도로 되돌아가는 현상에 주목</li> <li>• 회복의 속도와 크기를 분석</li> </ul>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을 맞았을 당시 시스템의 구성, 기능, 정체성에 집중</li> <li>• 시스템이 새로운 상태나 형태로 변화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충격 크기 분석</li> </ul>
충격에 반응할 때 긍정적측면의 적응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 시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에 주목</li> <li>• 주요 성능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 기능, 조직 변경은 용인</li> </ul>



# 03 회복탄력성(Resilience)

사회적경제를 통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선순환 구조



출처: Ilcheong Yi, 2023, p.282



# 04 무엇을? 어떻게?

번아웃(Burn out)에 대한 해독제로서 커뮤니티와 연대

- disciplinary society 에서 성과사회(achievement society , 성취중심 자아)로 전환, from “Should” to “Can” 이 주요 원인-사회적경제에서는 제도적 동형화로 인한 역량소진 현상
- 과도한 긍정성(excessive positivity)은 정보, 자극, 충동의 과잉으로 표현. 그럴수록 그 정보와 자극들은 파편화되고, perception becomes fragmented and scattered.
- “긍정의 폭력(violence of positivity)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킨다. 배제하지 않고 소진시켜버린다” (Byung-Chul Han, 2015, The Burn out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번아웃은 자주 당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확신시킴으로써 더 이상 (어떤) 시도조차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학습된 무기력함”\*
- 개인차원의 회복탄력성: 플라니의 ‘내면조망’,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공간(협동조합) 필요
-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지지적 관계, 연결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부담을 덜고, 고립감이나 압력 완화 가능

\* Bogue R & T. Bogue. 2019. Extinguish burnout : a practical guide to prevention and recovery

## 04 무엇을? 어떻게?



### 자선적 연대(philanthropic solidarity)에서 민주적 연대로

- 자선적 연대의 사례: 소액금융, 기업사회책임, Social Business, ‘빅소사이어티’
  - 불안정성과 위기를 발생시키는 시장경제 교정, 제도적 동형화 방지
    - 민주적 연대로(Utting, 2015: 54)
  - 시민사회와 공공간 상호적 민주화
  - 호혜적연대와 재분배적 연대는 상호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
  - 문제는 시장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와 국가간 관계에 존재하는 긴장들:
    - 엘리트에 의한 포획(capture)
    - 시장화와 co-optation(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회적경제가 수행하는 것)
      - \*이는 국가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일이기도 함(Mazzucato, Acemoglu & Robinson)
    - 제도적 동형화

\* Utting, P. 2015, *Social Solidarity Economy: Beyond the Fringe*, Zed Books: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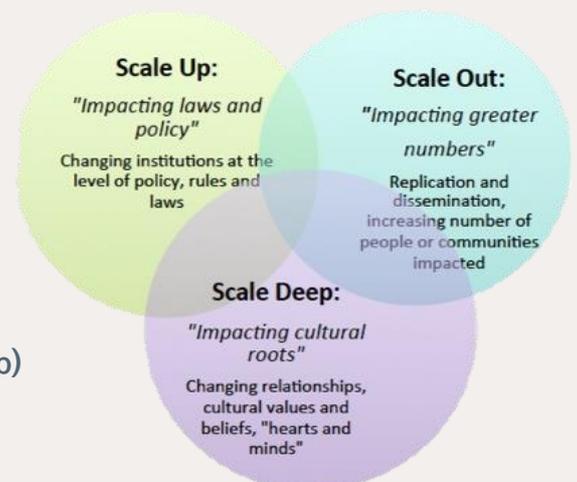
12

## 04 무엇을? 어떻게?



### 규모 성장(제도와 정책)에서 Scale deep으로

-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 성장은 양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 ‘co-opitalism’(Defourny et al. 1999)에서 탈피하기
-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의 내용
  -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유지하는 성장 (integrative scale up, Utting,2015;3 )
  - 사회적 비용의 부담
  - 사회적 가치와 지역 임팩트 (scale out)
  -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서 관계, 문화적 가치와 신념의 변화로(scale deep)



출처: Moore, M.L., et al. (2015)

13

# 04 무엇을? 어떻게?



## ▪ 통합적 성장의 전략

### 1) 역량

- 사회연대경제가 자본주의의 위기나 모순들에 대한 단순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동력에 의해 확대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능력 형성이 필요 ① 연대금융시스템과 ② 기술 및 가치 지향의 훈련시스템(Singer, 1996,117)
- 특히 지방정부의 중요성('local developmental states', Batemann, 2015:158)
- 사회혁신(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 2) 제도적 보완성

- 제도적 보완성은 특정 제도 형태의 작동 가능성이 여러 다른 제도적 형태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강하게 또는 전적으로 조건화되는 상태를 설명. 그런 여러 제도적 형태들의 결합을 통해서 다른 상태(configuration)와 비교하여 더 큰 회복력과 더 나은 성과가 가능(Crouch et al. 2005).

### 3) 참여: 굿 거버넌스를 넘어 실질적이고 적극적 참여로

- 통상적 거버넌스 논의는 다음 두 가지 무시 1) SSE 구조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행위자들/제도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쟁 2) SSE 행위자들의 '보이스'를 보증해야 한다는 사실

# 04 무엇을? 어떻게?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명책임

- 기업사회책임(CSR)이나 ESG경영 등에서 말하는 기업의 책임은 주로 투명성, 윤리성,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지배구조, 환경적 기준 준수 등에 부과되는 책임(responsibility)
- 이는 기업 역시 사회 속에서 생존, 진화하는 생태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속의 기업', 혹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최근 CSR이나 ESG경영 관련 논의는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 및 패널티 부과 관련 법률 제정과 규제를 함축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
-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논의와 실천 확대는 경영활동 실패나 비윤리적 활동 등으로 나빠진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는 수단, 기업 평판 향상, 이른바 '워싱'(washing) 수단
-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통해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
  - 영리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산된 소유구조 하에서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 외에 다른 목적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음

# 04 무엇을? 어떻게?



## 커뮤니티 기업가정신(주의)



- \* 시민앙트러프레너십: 지역이 발전하고 그 지역이 사회적·경제적 자산의 체계를 세우고, 공적, 사적, 시민 영역을 넘나들며 생산적이고 탄력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량(소셜이노베이션 그룹, 2020).
- \* 앙트러프레너(entrepreneur)의 ‘entre’는 ‘~사이에’, ‘preneur’는 ‘~을 취하다, 떠안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를 결합하면 ‘entrepreneur’란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해. 따라서 ‘기업가’만이 아니라 시민 운동가, 복지실천가, 마을활동가, 시민봉사자, 선출 또는 임명된 공무원, 학생 및 시민 들 모두가 앙트러프레너가 될 수 있음.

# 04 무엇을? 어떻게?



## 지역이 주도하고 소유하는 사업

### 1) 지역관리조직의 다양성

- 지역관리조직은 지역의 자율과 독립,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충족 되지 않는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는 조직을 의미
- 영국공동체이익회사(CIC), 공동체 기업(Community Enterprise), 프랑스 공익협동조합(SCIS)과 지역관리기업(RQ), 미국지역개발법인(CDCs), 미국, 캐나다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영국 TCM(Town Center Management), 일본 에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와 농촌지역조성사업체(RMO) 등
- 우리도 마을관리사협, 지역재생회사(CRC),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다양하게 존재

### 2) 지역관리조직의 의의(공동체성+사업성)

- 사회적경제 특성과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원리, 역할, 목표 등은 지역관리조직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
- 지역관리조직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관리조직은 (신)자유 주의 시장경제로 파괴된 사회관계 혹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임
- 둘째, 지역의 경제,사회,정치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주체로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과 제도들, 특히 민관협치(다중심) 지역 거버넌스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지역주도 지역관리조직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전환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임
- 넷째, 외국사례는 지역개발 및 지역관리조직에 대한 지역민 참여 의 무화, 지역자산에 대한 공동체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틀을 갖추고 있고, 이는 정부, 지자체, 비영리 시민단체, 민간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제도장치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음을 시사(송원근,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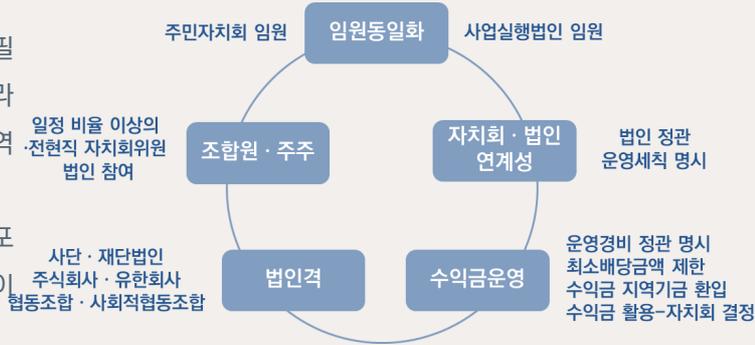


# 04 무엇을? 어떻게?

## 지역이 주도하고 소유하는 사업

### 3)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법인화)

- 주민자치회 산하 사업법인 설립을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에서 적극 권고, 지원
- 지역 사회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이나 마을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또한 주민자치회의 지역 내 위상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혁신 및 경제 활성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지역 내 공공서비스 및 공적 자산을 주민이 직접 운영코자 하는 필요도 증가
- 도시 및 지역재생, 생활SOC, 공공공간 운영, 마을 돌봄, 마을 기금 등 포괄적이고 공적사업을 수행할 지역 대표성을 가진 공적 사업 주체 필요성이 대두
-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관리기업 법인 설립에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발제

#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강익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강익(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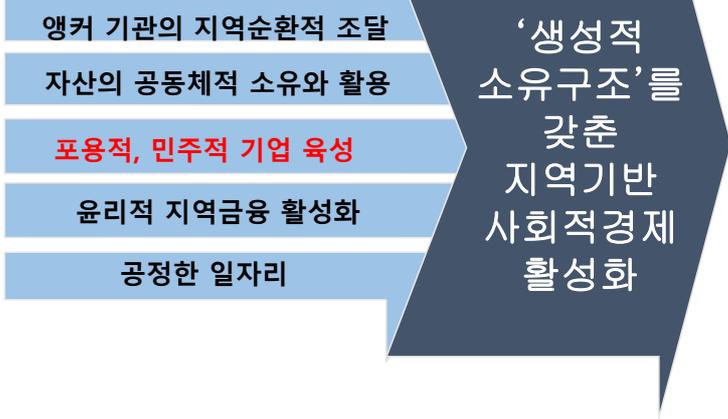
2024.11.05

## 목 차

- 1 지역순환경제(CWB)란?
- 2 지역순환경제(CWB)의 발전 과정
- 3 지역순환경제(CWB) 주요 사례
- 4 해외 지역순환경제(CWB)의 시사점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6 맺음말

# <논의 개요 :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 지역순환경제(CWB)의 5가지 정책 수단 (통합패키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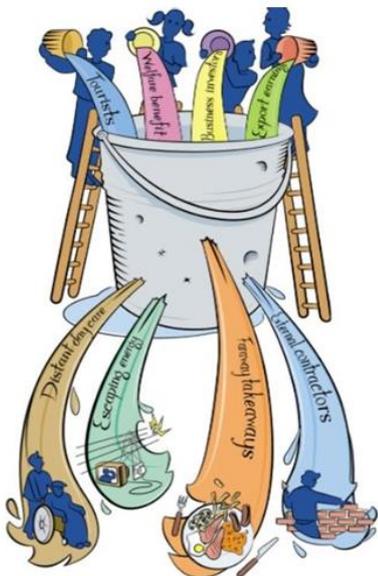
###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해외 사례>

- 지역 일자리 증가
- 지역 실업률 감소,
- 지역주민 건강 및 삶의 질 증가,
- 지역 승수 효과 증대

###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국내 사례>

- 지역 주민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기회 제공
- (농촌)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관계 인구 증대에 기여
- 사회적경제기업 및 문화예술기업의 거래 기회 제공
- 지역공동체 유지 및 결속력 강화에 기여

## 1 지역순환경제란? (개념)



**지역순환경제 = 공동체 부의 구축**

**(Common Wealth Building, CWB)**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조직(이른바 앵커기관, Anchor Institution)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주체 및 시민사회와의 탄탄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자금력과 조달력을 지역 안으로 매칭시키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부(Wealth)를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 안으로 선순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론

출처 : 지역순환경제네트워크, 2024, "지역공동체 부 구축"(<https://knled.org/pages/221>)

# 1 지역순환경제란? (핵심 주체- 앵커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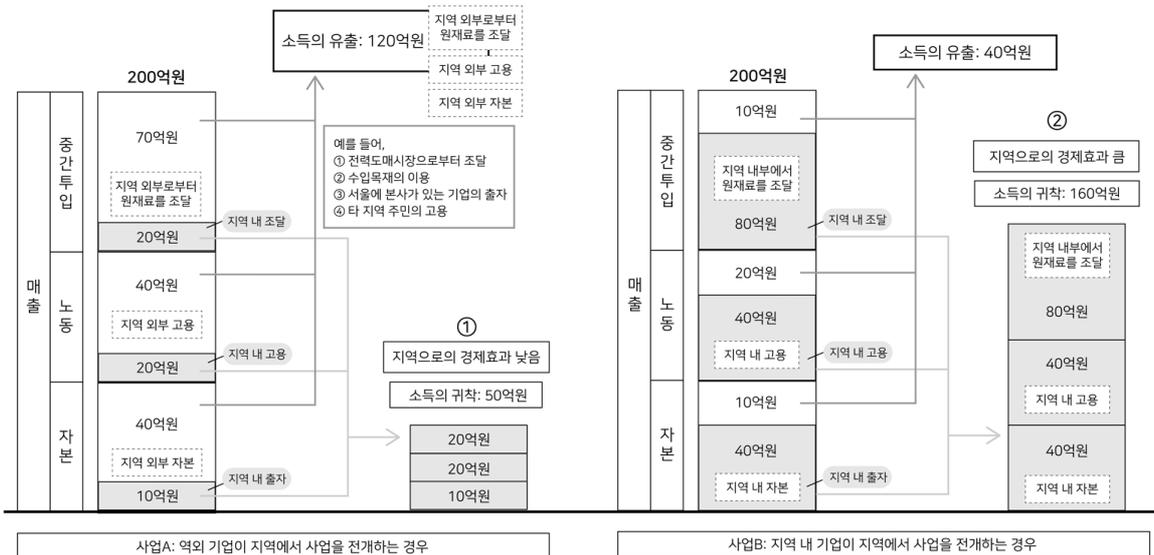
## ANCHOR INSTITUTIONS

- “Sticky capital” 밀착된 자본
- 경제적 동력: 직원과 구매자
-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기득권
- 대규모 공공 및 비영리기관의 봉사과 참여의 사명

출처 : 닐 맥킨로이, 2024,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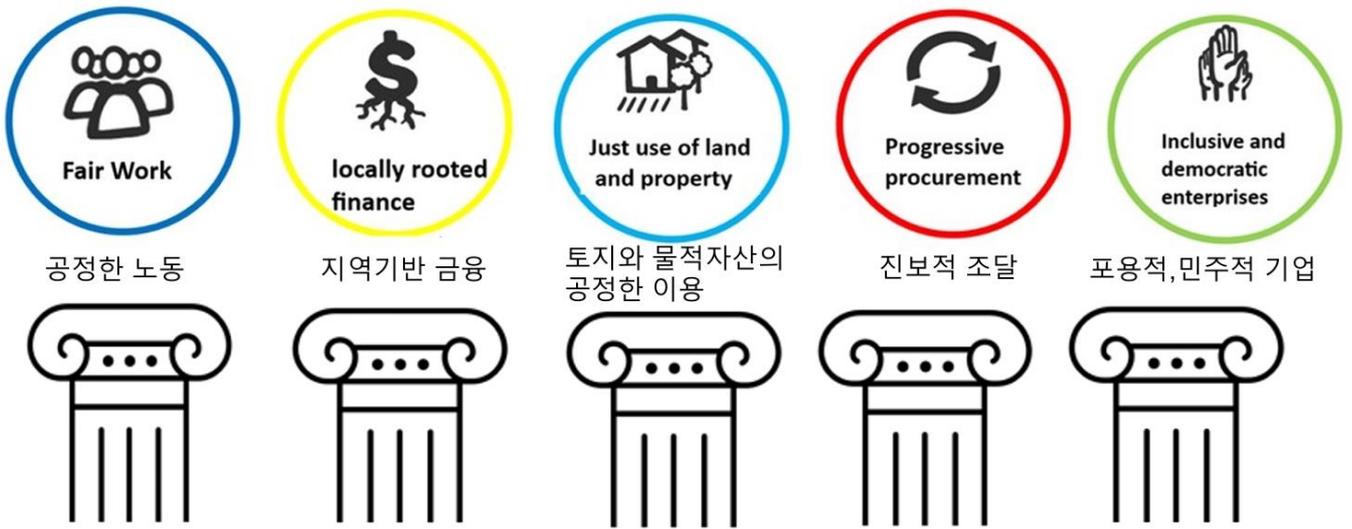
# 1 지역순환경제란? (핵심 주체 – 지역에 뿌리 내린 지역기업)

지역 내 기업 및 역외 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의 차이



출처 : 양준호, 2022,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 : ‘순환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인천대 후사연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 1 지역순환경제란? (정책 수단 - 5개의 기둥)



출처 : 닐 맥킨로이, 2024,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 2 지역순환경제(CWB)의 발전 과정

CWB는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모델임.

- 1956년에 작은 협동조합에서 시작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현재
  - 네 개의 부문, 즉 금융, 산업, 소매, 지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 92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 70,500명을 고용하고 있고,
  - 12개의 R&D 센터(2,300명의 전일제 연구원 근무)를 두고 있고,
  - 바스크 사업체 중 첫 번째, 스페인에서는 10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음.
  - 2023년 MCC의 매출은 11,056백만 유로(약 16조5천억원)임.
  - MCC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37개국 104개의 공장을 가지고 53개국에 영업점, 150개국 이상에 판매점을 두고 있음.



## 2 지역순환경제(CWB)의 발전 과정

미국에서는 지역·국가 차원에서 공동소유와 더 민주적인 경제를 위한 운동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역 사회 토지신탁’, ‘지역개발은행’, ‘노동자 소유기업’ 등이 생겨나기 시작함.

이러한 모든 혁신을 연결하는 용어로 ‘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 개념이 생겨남

이 개념은 2004년 미국의 연구기관인 ‘협력하는 민주주의(The Democracy Collaborative, TDC)’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음.



출처 : 지역순환경제네트워크, 2024, “지역공동체 부 구축”(https://knled.org/pages/221)

## 2 지역순환경제(CWB)의 발전 과정



CWB는 2008년부터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됨. 앵커 기관들의 지역 조달과 직원 소유 협동조합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혼합하여 ‘클래블랜드 모델’로 알려지게 됨.



이 모델이 지역의 기회를 창출하고 도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널리 인정받은 후, 이와 비슷한 전략이 다시금 영국의 프레스턴(Preston)에서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프리스턴 모델’이 됨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CWB를 발전시키는 곳이 수십 곳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The Democracy Collaborative(TDC)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지역순환경제네트워크, 2024, “지역공동체 부 구축”(https://knled.org/pages/221)

### 3 지역순환경제(CWB) 주요 사례 :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 클리블랜드 모델은 지역 내 ‘앵커’ 조직(대학, 병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회복에 기여한 모델임(한겨레신문, 2018년 5월 2일자).
- 이 모델은 2005년 클리블랜드 재단이 중심이 돼 지역 내 대학,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 하는 협의체(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를 만들었음.
- 여기서 주목한 것은 지역 내 대학과 병원, 공공기관 같은 지역 내 ‘앵커’ 조직의 수요가 지역 내 공급자에게 돌아간다면 지역 경제 회생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점이었음.



출처 : <https://knled.org/pages/221>

### 3 지역순환경제(CWB) 주요 사례 :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 한 조사에서 이들 조직이 한해 10억달러(약 1조700억원) 이상을 구매하지만 절반 이상은 지역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기관으로부터 조달 약속을 받고, 3개 영역(세탁서비스, 태양광, 신선채소 공급)에서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이후 여러 분야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결성됨
- Evergreen 협동조합은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음
- 직원의 대다수가 흑인이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하였음
- 조합의 모든 직원 소유자는 생활임금과 회사 이익의 일부를 받으며, 주택소유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



출처 : <https://knled.org/pages/221>

### 3 지역순환경제(CWB) 주요 사례 :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대표 사례>

- 에버그린 세탁 협동조합 : 빈곤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 친환경 세탁 사업
- 오하이오 쿠퍼러티브 솔라 : 대학, 병원, 가정에 태양광 시설 설치 및 판매
- 그린시티 그로어스 : 그린하우스 수경재배 방식으로 농작물 재배 및 공급



출처 : <https://knled.org/pages/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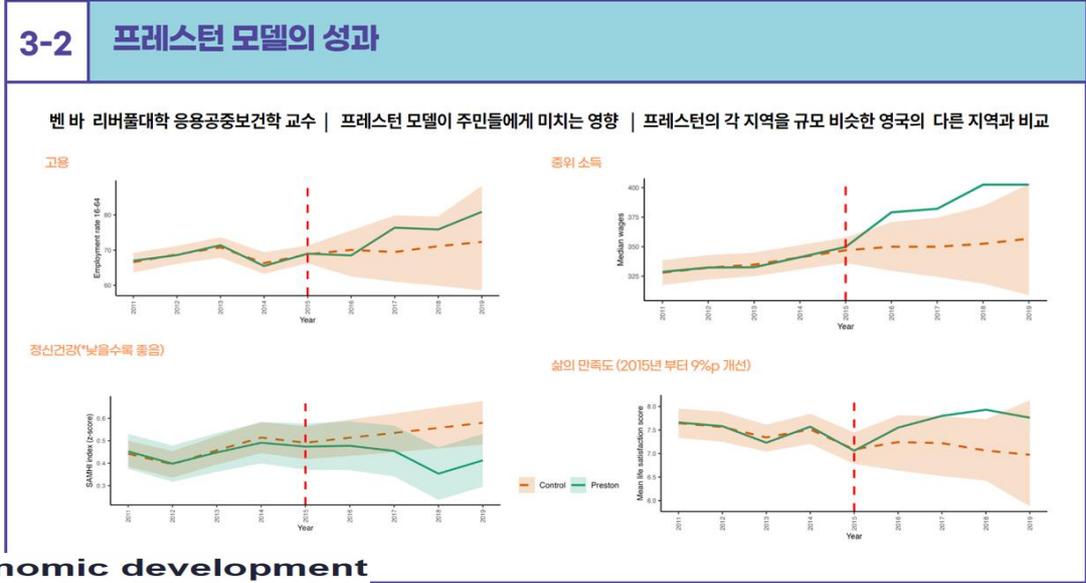
### 3 지역순환경제(CWB) 주요 사례 : 프레스턴

<p><b>1-1 프레스턴 모델의 배경 : 제조업 쇠퇴와 외부자본 유치 실패</b></p>	
	<p><b>프레스턴 PREST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랭커셔주의 주도</li> <li>- 인구 147,617 명(2021 기준), 도시인구 94%, 평균연령 36.4세 (16~64세 67%)</li> <li>- 평균기대수명 : 여 80.5 / 남 76.7 (*2010년보다 여 1.5, 남 2 ↑, 영국평균보다 ↓)</li> <li>- 1인당 GDP : £32,626 (약 4만 달러/5,400만 원) / 실업률 8.7%(*영국평균=3.9%)</li> <li>- 산업 : 건강(17.3%), 행정 및 국방(14%), 경영 관리 및 지원(9.7%), 교육(8.6%)</li> </ul>
<p>"그곳은 기계와 높은 굴뚝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고 끝없이 이어진 연기의 뱀이 쫓아다니며 놓아주지 않았다"</p> <p>전통적인 제조업 도시 산업혁명시기 면직물 생산에 최대 호황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운동 활발</p>	<p>1990년대 들어 글로벌 개발회사 중심 외부자본 유치 시도 '타이드반 프로젝트' 2008년 금융위기로 좌초 2011년 시의회 프로젝트 중단 선언</p> <p>1960년대부터 계속된 제조업 쇠퇴 신자유주의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실업 빈곤 불평등 심화 "영국에서 가장 자살률 높은 도시"</p>

출처 : 이미경, 2024, "프레스턴 모델",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사전 학습



### 3 지역순환경제(CWB) 주요 사례 : 프레스턴



**Preston's economic development boosts health and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프레스턴의 경제개발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켰

by University of Liverpool

출처 : 이미경, 2024, "프레스턴 모델",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사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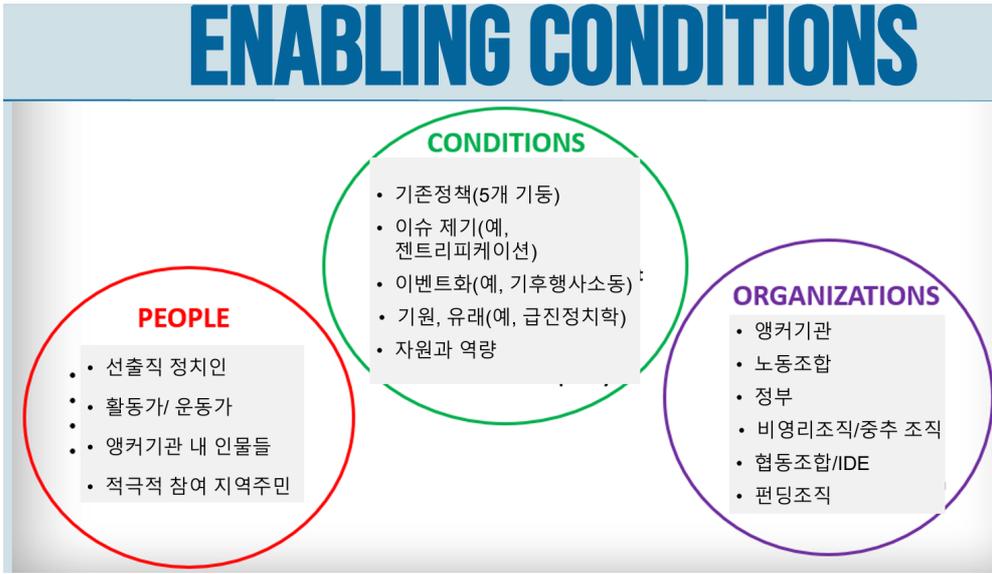
### 4 해외 지역순환경제(CWB)의 시사점 : 성과

## IMPACT

- 앵커 지출의 경로를 바꾸어 일자리 증가: 재편된 지출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100만 달러가 유입될 때마다 2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실업률 감소: CWB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최대 5% 감소(미국)
- 직원 소유 기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CWB 도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의 최대 3배(미국)
- 정신건강 상태 개선: CWB를 통해 경제적 안정이 강화됨으로써 정신 건강이 최대 10%까지 개선됨 (영국 프레스턴).
- 지역 경제 승수 증가: 소규모 지역 기업에 대한 지출은 대규모 지역 기업에 대한 지출보다 지역 경제에 최대 25% 더 많은 이익을 창출 (영국/스코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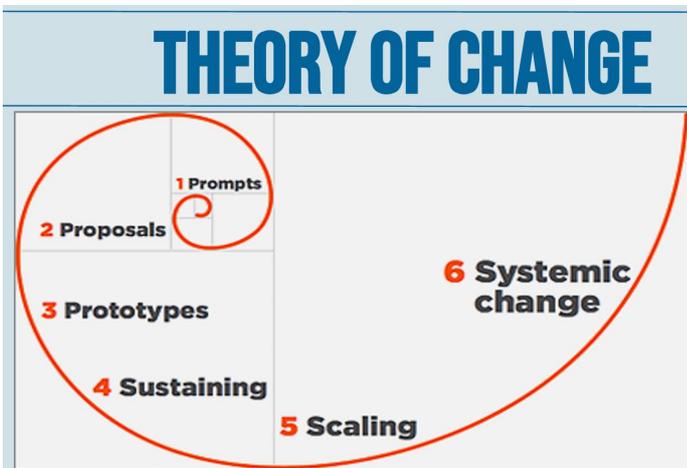
출처 : 닐 맥킨로이, 2024,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 4 해외 지역순환경제(CWB)의 시사점 : 성공 요인



출처 : 닐 맥킨로이, 2024,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 4 해외 지역순환경제(CWB)의 시사점 : 6단계로?



- 1 돌발 상황, 사회지표 리뷰, 불만족 경험
- 2 아이디어 등장 단계
- 3 창출된 아이디어의 테스트 단계
- 4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상에 자리잡는 단계
- 5 사회혁신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소셜 프랜차이징)
- 6 사회적 시스템 변화(변화의 프레임)

출처 : 닐 맥킨로이, 2024,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하는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하는가?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자산화와 사회적경제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적 성과

성장 과정

- (미션) 한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실천적 행동
- 농가소득보장, 한우대중화, 지역사회공헌

- 사랑말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5개 마을을 아우르는 이름
- \* 접근성 취약, 주변 관광시설 미흡, 일교차 커 한우 사육 최적
-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배경으로 탄생
- 2008년 44명의 출자로 홍천 사랑말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09년 홍천 사랑말 TMR 사료공장 건립, 판로개척 애로
- 2012년 4월 직매장/식당 개점, 대성공, 비선호 부위 처리 문제
- 2013년 육가공센터 건립, 학교/단체급식 납품
- 2014년 직매장/식당 흥천점 이전 개업
- 2015년 직매장/식당 의정부점 개점
- 2018년 복합문화센터 건립(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경제적 성과>

- 매출 향상 : 2011년 23.7억 → 2013년 94.5억 → 2015년 114.7억 → 2017년 143억 → 2020년 240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6개 사업장에 정규직 60명 고용

<사회적 성과>

- 청년 및 취약계층 약 40% 고용
- 한우 소비자 가격 인하(약 20%)로 한우 대중화 선도
- 한우 농가(108농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방문객 증가와 지역축제로 지역관광 및 홍보에 기여 (연간 16만명 이상)
- 지역사회 환원 : 고령자 한우식사 제공, 다문화학교 지원, 장학금 등
- 2015년 농림축산식품 6차산업 경진대회 '금상' 수상
- 북방면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장기비전 준비

<혁신 성과>

- 사료 및 고기 품질개선, 드라이에이징, 직거래유통시스템 구축, 한우 가격 인하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성공 요인

-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잘 할 수 있는 사업 선택
- 정책 사업을 활용한 효과적인 지역 자산화 : 사료 공장, 직매장 등
-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자체 사료 급여로 고품질 한우 생산(높은 등급 출현율)
- 운영비를 제외한 이윤 최소화 정책에 따른 가격경쟁력 월등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한우 매입 정책 실시 및 수매가격보장
- \*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장려금, 유통비용지원 등으로 두당 120만원 추가 소득
- 조합원 무배당과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원칙으로 조합의 '공공성' 제고
- 지역 농가들의 높은 결속력 : 민주적 운영, 사업성공, 지역축제 등
- 사회적 미션과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리더십 : 고비 때마다 적극적 해결책 모색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회적협동조합 별빛(강원도 춘천)

- (미션) 마을주민이 마을주민의 문제를 발견하고 서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연혁>

- 2005 별빛 공부방 설립
- 2009 별빛지역아동센터 인가
- 2010 별빛산골유학센터 설립,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
- 201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교육부장관)
- 2015 우수 협동조합 경제부총리 표창
- 2016 강원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정 (송화초-별빛 MOU)
- 2017 농림부장관상
- 2018 제11회 전국 지역 리더상, 우수마을기업 입상
- 사회적기업 지정, 나이들기 좋은마을팀 신설
- 우리마을 119 사업 -> 효나눔복지센터 사업화(이웃복지사)

### 성장 과정



### 사회경제적 성과

- (사회적가치 지향성)
  - 농번기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결
  - 통폐합 위기의 마을학교 지킴, 또래친구 필요성 해결
  -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 부분 해결 : 홈스테이 농가
  - 나이들기 좋은마을팀을 통해 고령화 문제 대응
  - 농촌마을주민들의 생활·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대별 활동과 세대통합적인 활동 진행
-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와 협력)
  - 수자원공사와 노인일자리, 돌봄사업운영
  - 고탄리마을과 함께 마을 축제 개최
  - 효나눔복지센터와 함께 마을 어르신 이미용서비스 진행
- (경제적 성과)
  - 매출: 통상 2~3억
  - 고용은 4명의 종사자를 유지하고 있음
- (혁신 노력)
  - 시골장터 개최, 귀촌자 협업농장 운영(2017~18년) 등 귀촌자의 마을정착과 역할을 통한 농촌마을공동체 구현
  - 산골유학사업에 따른 교육 귀촌자 증가 (2018년 3가구 12명 귀촌, 2019년 2가구 8명 귀촌)
  - 기존의 환경개선활동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아이들과 어울리는 세대 공감 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 마을어르신 댁 간단한 집수리와 병원 이동을 하는 우리마을119사업의 지속화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 도모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회적협동조합 별빛(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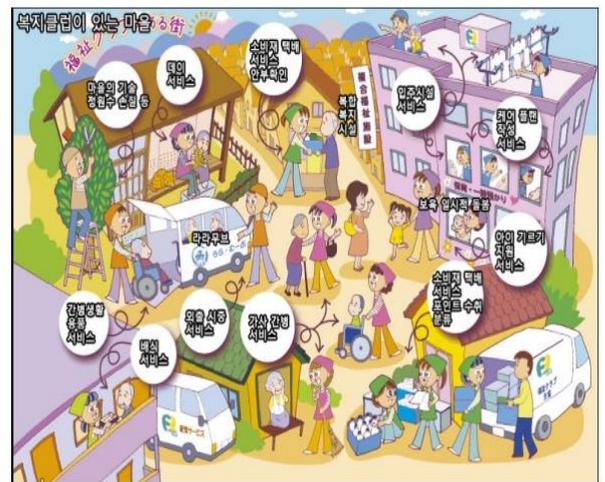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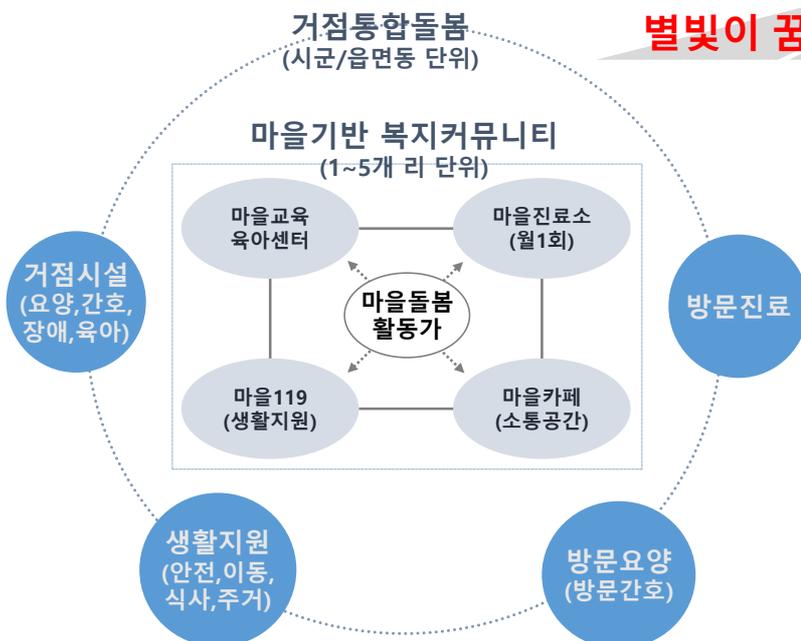
성공요인

- 명확한 사회적 미션 추구 및 평판강화 노력
- 질 높은 산골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
- **교육청,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력**
- **지역 자산 확보 : 솔다원나눔터 위탁 관리**
- 명확한 미션과 사업능력을 갖춘 리더십
- 지역활성화 및 교육개선을 위한 학습 및 혁신 추구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직원과의 소통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별빛이 꿈꾸는 마을기반 복지커뮤니티



참고: <http://fukushi-club.net/index.html>, 2013년 9월 26일 열람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 (미션) 동시대의 가치를 담은 창작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람과 예술, 삶과 꿈을 이어 세상을 따뜻하고 윤택하게 함

#### 성장 과정

##### ◦ (연혁)

- 2000년 극단도모를 창단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문화프로덕션 도모는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으로 연극작품 제작과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교육의 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2015년 강원도사회적경제선도기업 선정,
-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됨
- **2021년 춘천 신동면 실레마을에 있는 한 공장을 개조해 1~3층 규모의 문화예술공간 '아트팩토리 봄'을 오픈, 1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시민연극교실, 카페, 레지던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하였음**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 사회적 가치

##### ◦ (사회적가치 지향성)

- 취약계층을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작품 등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객석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 농촌마을로 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취약계층 고용과 탄력근무제, 생애주기별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 가족친화 기업을 위해 노력

##### ◦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와 협력)

- 강원도내 문화예술 후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과 인력들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문화예술 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정기 모임, 행사 시 공간지원 등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 진행
- '강원문화 인큐베이팅'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기획과 실행 부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고용을 연계하여 도내 문화예술계 전체에 실질적 도움 위한 노력

##### ◦ (경제적 성과) 유급근로자 수는 2020년에 11명, 매출액은 2020년에 14억 8천만원(코로나 영향으로 소폭 감소)

##### ◦ (혁신 노력)

- 내부 경영혁신을 위한 KPI전문가 자문과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역량강화 및 경영 효율화 추구
- 해외 공연팀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공연팀이 해외 유명 축제에 참가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진화 중

#### 성공요인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혁신적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자유로운 감성과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춘 황운기 대표에 있습니다. 둘째, 도모의 조직도에서 보듯이 도모는 시장 및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조직 및 사업혁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복지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구조 창출하였고, 다섯째, 도모의 다양한 실험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문화예술 관련 정책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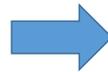


#### 적은 급여 착한복지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구분	측정기준(지표)	목표	결과
E	전기사용량	5% 감소	10% 감소
	세트재활용	10% 이상	30% 이상
	인쇄물 최소화	10% 감소	10% 감소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도모의 선언문 제정	1건 제정	1건 제정
S	정규직 비율	70% 이상	86%
	취약계층고용률	20% 이상	30%
	1인당 직원 교육 시간	3시간 이상	5시간
	복지후생 제도 운영 건수	7건 이상	11건
	취약계층 무료 공연 제공	290명 이상	290명
	취약계층 무료 교육 제공	200명 이상 / 400시간 이상	447명 / 890시간
G	취약계층인자 거래 - 문화예술기업	20건 이상	39건
	문화예술 자산 보호 - 예술인 거래액	50명 이상	120명
	지역사회와의 협력 건수	7건 이상	12건
	사단법인 회원 수	21명	21명
	사단법인 회원 전문성	해당분야 전문가 10% 이상	30% 이상
	이사회 전문성	해당분야 전문가 50%	100%
	이사회 운영 건수	4회 이상	6회
이사회 참여 비율	80%	100%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 자산화와 사회적경제

###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구분	성과	대상	거리 기업 수 / 수혜자수	거리 (제공) 금액	사회성과 계산	사회성과 (원)
제품/서비스 성과	합인/무료 제공	취약계층	취약계층 무료 공연 제공 290인 고령자무료문화예술교육 447명(연인원) 예술인대상무료 공유오피스 2팀	13,266,000	취약계층 무료 공연 18000원*290명 = 5,220,000원 고령자문화예술447명*15000원 = 6,705,000 공유오피스2팀15개월*400000원 = 6,000,000	17,925,000
내부공정 성과	취약계층 직접고용	취약계층	1인 (고령자)	37,300,000	근무개월*월평균급여	37,300,000
외부공정 성과	취약 생산자외의 거래시 새로운 거리 기회 제공	사회적 경제기업	4개소	36,409,000	36,409,000 * 42.3386229576928% (서비스업부가가치율/법인)	15,415,069
		영세문화 예술기업	39개소	187,620,309	187,620,309 * 43.1813733818562% (서비스업 부가가치율/혼합) * 75.61%(영세사업자비율)	61,256,973
	문화예술 자산 보호	문화예술인 (예술가)	120인	163,304,047	163,304,047 * 60.9%(예술인빈곤율) * 65% (예술인부가가치율)	64,643,907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순환 조달과 사회적경제

- 2022년 기준 춘천시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9,845억 원임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총액 : 2022년 78억원(0.80%), 매년 조금씩 증가
- 주목할 부분은 '춘천문화재단'의 사례 : 앵커기관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 수익계약 상위 20개 기관(2022)

- 춘천시 : 10.6억원
- 춘천문화재단 : 6.1억원
- 도교육청 : 4.7억원
- 강원특별자치도 : 3.6억원

<표> 춘천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수익계약 실적 상위 20개 기관

기관 /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463,594,710	804,540,906	1,062,220,110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207,775,000	658,746,000	612,666,0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0,790,520	343,865,000	478,461,510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5,200,000	374,211,000	365,980,300
강원특별자치도	170,098,000	314,128,000	285,666,020
강원대학교병원	99,997,300	126,228,500	116,536,0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60,939,220	93,723,000	144,512,600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197,990,000	232,400,000	
강원대학교		155,843,610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83,809,300	97,001,420	84,435,420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44,880,000	45,184,090	139,668,6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81,420,000	24,454,000	56,442,0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10,800,000	50,492,570	129,941,500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36,800,000	41,650,000	33,700,000
(재)춘천지역의거리통합지원센터			19,800,000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연구소		30,000,000	50,000,000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15,730,000	34,900,000	26,000,000
춘천시립예술단	7,500,000	25,618,000	15,860,000
재단법인춘천지혜의숲		20,805,000	43,000,000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25,330,000		38,318,000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순환 조달과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판(사회적기업)

#### ◦ (연혁)

- 축제제작, 행사대행, 문화인력 인큐베이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출신으로 2016년 설립되어, 당해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국 우수협동조합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강릉 신날레&평창 비엔날레 총괄 운영,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상품관 총괄 운영, 춘천사회적경제 한마당, 무한청춘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기획 운영
- 2020년 소셜벤처 기업으로 인증

#### 성장 과정



- (미션 및 비전) "지역사회의 문제를 우리의 재밌는 문화예술 기획으로 해결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그것을 함께 만들 지역의 문화인력을 키운다"는 미션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밌는 기획으로 경제적 성장과 문화인력이 성장가능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 (추진전략)

- '축제학교 성장판'이라는 문화인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청년 문화에 대한 고민하고,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문화인력들을 관련 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 전문문화인력 축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판클럽'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문화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코로나 대비 비대면 콘텐츠 수요로 인해 중계 가능한 영상장비 시스템을 구축
- 축제와 행사 진행 후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여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순환 조달과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판(사회적기업)

#### 사회경제적 성과

#### ◦ (사회적가치 지향성)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7명 중 4명의 취약계층 고용으로 의무고용 비율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운영, 문화예술, 기획 등과 관련된 내부 직원 교육과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축제 및 행사 기획 진행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전시가판대를 제작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를 위한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예술가와 지역문화콘텐츠,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하는 계약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와 협력)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으로 참여, 도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이사, 관련 협동조합의 창업 및 설립 컨설팅 제공 등 춘천사회혁신 센터, 문화재단, 연극제, 축제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적 협력 활동 진행
- 사단법인 강원살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18개 시군에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하는 사업 추진 중
- 대표의 경우 춘천시 청년청 1대 명예청년청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 중이며, 춘천 내 문화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개발 모임에 참여하고 있음

#### ◦ (경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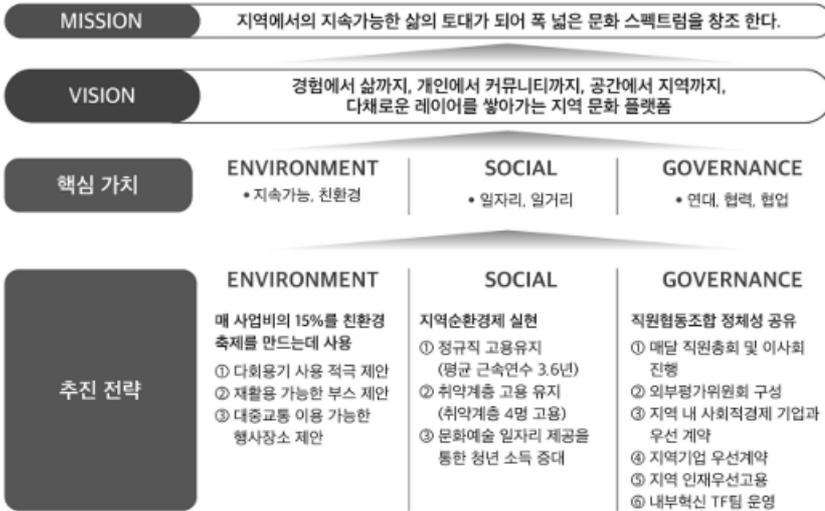
- 매출액은 통상 10억 내외

#### ◦ (혁신 노력)

- 재무금융 컨설팅을 통해 법인의 재무 목표지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당 수익률을 20%로 향상(현재 17~18%)시키고, 지원없이 자립 가능한 형태 매출 목표 9억으로 잡고 사업구조 개편
- 산학협력을 통해 친환경 소재 행사용품(나무부스, 나무천막, 이동식 나무 파티션, 나무간판-배너거치대-전시대) 개발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순환 조달과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판(사회적기업)



### 측정 기준 및 결과

구분	측정 기준(서표)					결과(성과)	
E	매 사업비의 15%를 친환경 축제를 만드는데 사용(1년 측정)					15% 이상 사용	
	10점	8점	6점	4점	2점		
	15%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5% 이상		
S	직원협동조합의 정체성 공유						
	매달 직원총회 개최 (1년 측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12회 진행 (100%)
	정규직 고용 유지 (1년 측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11명 고용 (100%)
	취약계층 고용 유지 (1년 측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4명 고용
	문화예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소득 증대(1년 측정)	5점	4점	3점	2점	1점	25명 소득 증대 -> 5,590,747.89
G	지역 순환경제 실현						
	지역 내 문화예술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 (1년 측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29개 기업과 거래 50,255,433
	지역인재 우선 고용 (1년 측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11명 지역인재 고용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1년 측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10기업과 거래 48,630,693

# 5 강원도 지역순환경제(CWB) 사례 : 지역순환 조달과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판(사회적기업)

구분	성과	대상	거래 기업 수 /수혜자수	전체 거래 금액	사회성과 계산	사회성과 (원)
외부공정 성과	취약생산지역의 거래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사회적 경제기업	10개소	114,861,300	114861300 *42.3386229576928% (서비스업부가가치율/법인)	48,630,693
		영세문화 예술기업	29개소	153,924,350	153,924,350 *43.1813733818562% (서비스업 부가가치율/혼합) *75.61%(영세사업자비율)	50,255,433
	문화예술 자산 보호	문화예술인 (예술가)	25인	14,123,400	14,123,400 *60.9%(예술인빈곤율) *65%(예술인부가가치율)	5,590,748
내부공정 성과	취약계층 직접고용	취약계층	4인 (장기실직자, 고령자, 저소득)		근무개월 *월평균급여	87,251,000

## 6 맺음말 : 사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지역 자산화’와 ‘앵커기관의 지역순환적 조달’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자산화와 지역순환 조달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이 지역순환경제에 미치는 경로>**

- 지역 주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생활임금, 좋은 근로환경 조성 노력
-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기회 제공
- 농촌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교육, 돌봄,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관계인구 증대에 기여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문화예술기업의 거래 기회 제공
- 지역공동체 유지 및 결속력 강화에 기여

2. ‘지역 기반의 윤리적 금융’의 취약성으로 인해,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적극적인 지역 자산화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모, 판, 별 및 사례).

## 6 맺음말 : 사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이 지역순환경제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성적 소유 구조**’를 갖춘 건강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함.

추출적 소유	생성적 소유 기업 모델
1. 금전적 목적 : 단기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1. <b>삶을 위한 목적</b> : 장기적 시각으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2. 부재자 구성원 : 소유한 이들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2. <b>뿌리내린 구성원</b> : 기업 활동의 기반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소유권이 주어짐
3.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 : 자본 시장이 자동항법 장치로 기업을 통제함	3. <b>사명 경영 거버넌스</b> : 사회적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통제함
4. 카지노 금융 : 자본이 주인 노릇을 함	4. <b>이해당사자 금융</b> : 자본이 친구가 됨
5. 상품 네트워크 : 가격과 이윤에 초점을 맞춘 거래	5. <b>윤리적 네트워크</b> : 사회적, 생태적 규범에 대한 집단적 지원



## 6 맺음말 : 사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볼때, 공동체 부 구축(CWB)에서 제시하는 ‘5개의 기둥(정책 수단)’은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의미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5개의 기둥은 개별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서 구성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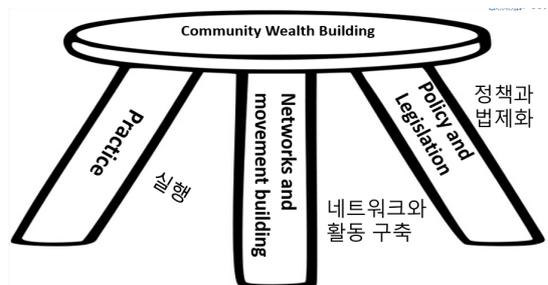


## 6 맺음말 : 사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통합적 정책 추진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 스코틀랜드는 국가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스코틀랜드만의 변형된 CWB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 방식을 보이는데 32개 지방자치 단체 모두가 해당 지역만의 맞춤형 CWB 실행 계획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이한 점은 스코틀랜드정부 내에는 ‘**공공재정, 계획, 공동체 부 장관(Minister for Public Finance, Planning and Community Wealth)**’이 있으며, 체계적인 경제 변혁의 핵심요소인 CWB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발표(주거)

# 주거와 자녀 돌봄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송아영 위스테인지축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주거와 자녀 돌봄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 위스태이지축 사회적협동조합

2024.11.05

2024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Chapter 01

### 위스태이 지축 사회적협동조합

since 2018



- **조합원** **539명**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형 주거 공동체 / 539세대 / 22년 2월 16일 입주 시작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양주시 인근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징**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차인이자 공급자가 되는 구조
- **보육 서비스** **놀러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프로그램 / 2년 8월 운영 시작
- **비즈니스** **편의점 무인상점 청과점 운영**  
자회사 설립 및 근린상가 10개 중 조합이 임대하여 운영

## 위스테인지속 사회적협동조합

- 국토교통부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별내, 지축)
- 협동조합은 임차인이자 공급자로서 공동의 권익을 추구하고 아파트운영의 주체
- 입주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법정 기준 2배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주거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 참여, 추진하는 주거 공동체



안정적인 주거권



주거 공동체



도시 공동체



아이들의 돌봄이 모두에게 저효율 고비용의 서비스 상품이 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어버린 현실  
이웃끼리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체가 되어 양질의 안전한 돌봄을 합당한 수준의 비용으로 해소하는  
위스테인 지축의 마을 돌봄 공동체

5세 -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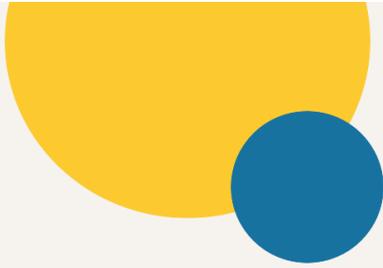
평일(월~금)  
16:20~18:20

마을 주민이 선생님  
돌봄 교사 평균 5명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온 마을이 온 아이를 함께 키운다



since 2022

# 놀러온 히스토리

입주 초기부터 셋팅, 입주 후 시범시간을 거쳐 정기 운영으로 정착  
마을 비즈니스인 근린상가 GS편의점의 수익금을 놀러온 운영비로 사용

함께 비교해볼 사례 : 다함께 돌봄센터 / 위스데이빌내의 스케어

## 놀러온의 특별함

(주변 아파트들의 부러움의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 내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서 목직한 존재감

이웃사촌 = 돌봄 선생님

안전한 돌봄제공+합리적인 비용

외부지원이 아닌 자체 자원으로 운영

마을 일자리 창출(시니어, 경력보유자 등)

### 시작점

연령별 희망하는 주거 서비스 (출처 : 위스데이지축 입주자 분석 보고서/더함)



### 커뮤니티디자인 워크숍의 과정



# 특별한 마을 편의점

조합이 직접 운영  
주민 편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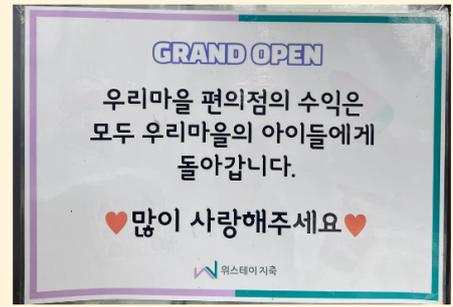
GS 편의점

수익금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사용

총회를 통해 자금 구조 마련

20대~60대  
마을 일자리 창출

매월 평균 15명 고용



마을 돌봄

## 놀러온

아이들의 돌봄이 모두에게 저효율 고비용의 서비스 상품이 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어버린 현실  
이웃끼리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체가 되어 양질의 안전한 돌봄을 합당한 수준의 비용으로 해소하는  
위스태이지축의 마을 돌봄 공동체

5세 -9세

평일(월~금)  
16:20~18:20

마을 주민이 선생님  
돌봄 교사 평균 5명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온 마을이 온 아이를 함께 키운다

since2022

# 놀러온 기록

2년 6개월 / 함께 자라는 동네 아이들



## 누적 돌봄 인원 9,000명

월 평균 300명, 하루 평균 15-20명  
평균 월 등록 22명, 평균 일 등록 54명  
픽업 서비스 옵션 운영



## 누적 마을 일자리 600명

월 평균 놀러섬 일자리 19명  
고용 산재 가입  
30대-60대 연령의 선생님

꿀벌식당으로  
놀러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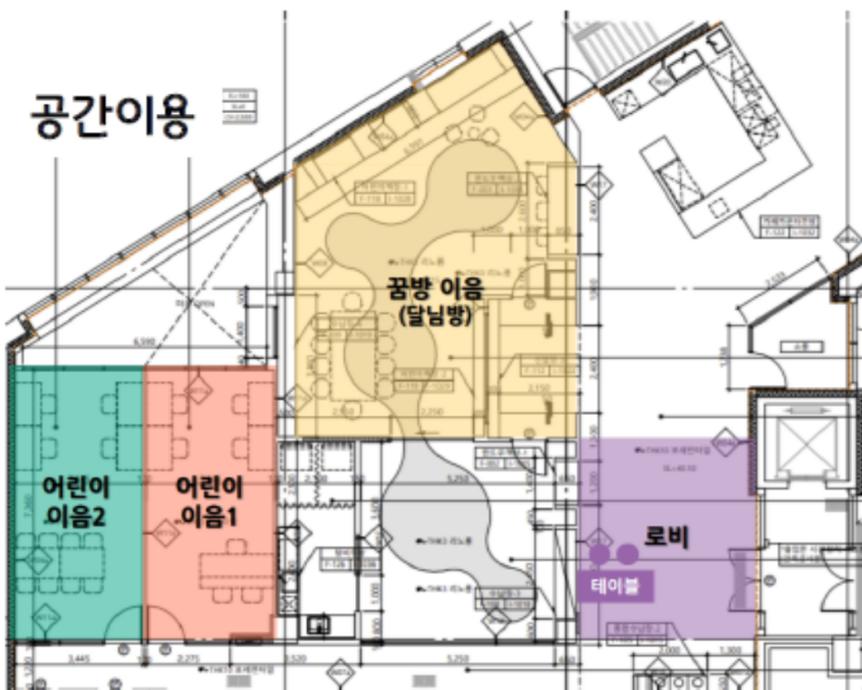


놀러온이 만든 위스데이 꿀벌식당

## 프로그램

요리, 만들기, 악기, 보드게임 특강 등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 및 연극 공연  
마을은 아이들의 무대이자 전시회장

## 공간



- 5~7세 / 평일 4시 반 ~ 6시 반 동일 / 일 2시간
- 핵심 돌봄 공간(어린이이음 1,2 / 공방이음) 내 돌봄 선생님이 상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안전관리만 수행
-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는 운영 매니저가 수행

공간명	공간별 역할	놀러섬 인원
로비	출결 관리 및 이달 아동 케어	CM매니저 + 운영팀 1명
공방 이음 (달님방)	유아동 놀이 (5-7세)	돌봄(놀러섬) 2명
어린이 이음1	자유놀이1	돌봄(놀러섬) 1명
어린이 이음2 (필요시 체육관 지원)	자유놀이2	돌봄(놀러섬) 1명
체육관/GX룸	음놀이	돌봄(놀러섬) 2명
<b>총 인원</b>		<b>최대 8명</b> (놀러섬 6명/운영 2명)

## 인구 소멸도시의 깊은 고민들

### 위스태이 지축

#### 539세대 / 인구 3000명

3-40대의 구성원들이 70%  
적극적인 돌봄 솔루션 시도중  
아파트 단지를 거점으로 운영

### 필요성

#### 돌봄 공백의 현실

신도시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  
사교육으로 채워지는 시간들

### 가능성

#### 기대 효과

쌓여가는 시간만큼  
축적되는 돌봄의 유의미한 기록들  
주거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계

### 강원도 태백

#### 구도심 장성 / 인구 3500명

시 전체 인구 4만  
아이들도 인구도 감소하는 도시

### 필요성

#### 인구 감소로 돌봄 기관 폐업

사라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의 폐교를 막을 수 는 없지만  
돌봄 공동체 조성 가능

### 가능성

#### 폐광 후의 삶

양보다는 질적인 돌봄 필요  
주거 커뮤니티의 공고함은 자원

### 그렇다면

## 앞으로의 과제

아파트 내부의 조합원만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는 지속성과 한계성 존재  
다양한 연령과 니즈를 반영해야하는 조합 운영 특성상 육아 돌봄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자원에 대한 불평등 증가 등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 모으기



저출산 사회의  
실질적인 대안



사회적경제로서의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결점 필요

# 주거과 돌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일반적 신뢰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  
아파트지만 마을과 마을의 어른들이 낯설지 않은 주거 공동체  
튼튼한 사회적경제 울타리 안에서 돌봄 이슈를 함께 해결하며  
'주거 공동체 신뢰 구축'

사례발표(청년 일자리)

# 청년의 실험, 지역의 미래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이사장

Local  
Impact  
Campus

&mentory



서울만이 답일까?





### MISSION

미래세대와 함께 만드는 로컬의 '할 일'



### SLOGAN

미래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지역다움'



### MEMBER

2,30대 청년  
160명의 어른 서포터



### PHILANTHROPIE

아산나눔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다음세대재단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밖 실험실,

##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



- 혁신 창업가 발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창업가 발굴

### 글로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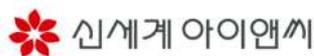
- Rolls-Royce corp.
- City Foundation  
방글라데시 캠퍼스 조성



- 취약계층 자립  
로컬의 자립 안전망 형성



- 카카오 100up  
농산어촌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해결



- 혁신 인재 육성  
로컬의 혁신인재 육성



- 꿈장학재단/SDS  
농산어촌 청소년들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개발

### 기업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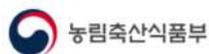
- 기업의 ESG + 지역 인재육성  
=> 지방소멸 대응 역량 강화
-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세대를 위한 혁신  
적인 시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업
- '지역'의 자원을 발굴-활용-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해  
국내 농산어촌의 문제해결 솔루션을  
해외로 확장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밖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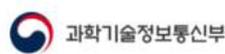
#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



- 경북 청년 창업지원사업
- 경북 워킹홀리데이



- 농업기술 실용화 프로젝트
- 산림분야 특화 창업교육



- 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 아이디어로

## 공공사업



- 서울시 미래일자리사업
- 청년 내 일 프로젝트



- 농산어촌 청소년 PBL 교육
- 청소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 청년 문제해결 체험 프로그램

-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실행
- 시범 사업 및 혁신 사업 발굴 및 운영
- 공모/지원 사업은 행안부 청년마을 외 수  
행하지 않음

## 로컬의 미래를 만들어갈 로컬의 혁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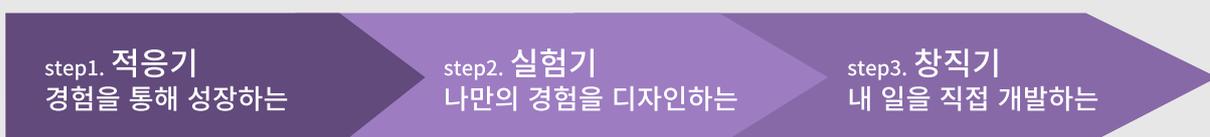
"로컬 프러너"  
(local preneur)

local +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을 갖춘 로컬의 혁신가

## 로컬을 가장 잘 활용 할 수 있는 로컬프러너의 육성



## 할 일을 만드는 기본을 배우는 곳



## Local Preneur

“

나의 **역량** 을 바탕으로  
로컬의 **매력** 을 활용해  
나는 **일** 을 합니다

”

## Local Impact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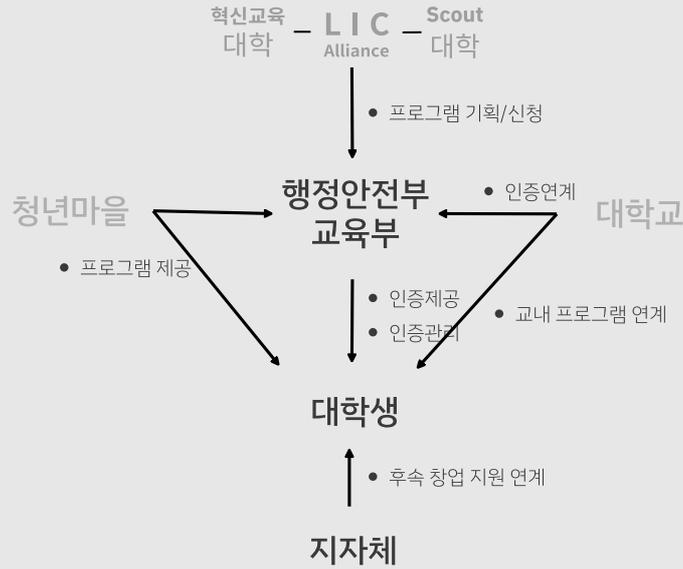
“

이상을 추구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로컬의 대학

”

행정안전부-교육부

# 로컬프러너십 제도(공식인증)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로컬임팩트캠퍼스



**성균관대학교**  
교무처&경영대학

- 졸업인증 연계인턴십 280 시간 제공
- 경영대학 학점 연계팀기업 가정신 수업 3학점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 혁신가 인증연세혁신가 인증 7종중 7번째 인증
- 교과 연계로컬관련 교과 프로그램 연계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 장학제도 연계포인트 제공
- 로컬프러너십 제도 신설 수업, 프로그램 신설
- 국제 포럼 운영

## 교육부 SCOUT 사업단

- 수도권 중앙대, 고려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 대경강원권 영남대, 포항공대, 계명대, 안동대, 강릉원주대
- 충청권 충남대, 고려대(세종), 순천향대, 충북대
- 동남권 부경대, 경상대, 울산대, 창원대
- 호남제주권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원광대, 제주대
- 전문대 대경대, 강원도립대, 계명문화대, 대구보건대



**미네르바대학교**

- 자발적 참여
- 소셜벤처 문제해결 프로젝트
- 사회혁신 동아리 네트워킹
- 커뮤니티 프로그램

미래세대를 위한 로컬의 대학

## 로컬임팩트캠퍼스 현장교수진 43명 / 파트너 기관 6곳



**MYSC 김정태 대표**

투자 전문가

- 국내 최대 임팩트 투자사
- 로컬 전용 펀드 운용



**블라썸미 최명화 대표**

브랜딩 전문가

- 맥킨지 컨설턴트
- 현대자동차 마케팅 전략실장
- 두산그룹 브랜드 총괄 전무
- LG전자 이노베이션팀 상무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교수



**제주더큰내일센터 김종현 센터장**

소셜벤처 전문가

- 국내 최초 지역형 혁신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 NXC 대외사업본부장
-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실장



카카오임팩트100up

신세계 I&C

SK임업

신협

삼성꿈장학재단

월드비전

청년들은 경험을 그냥 경험이 아니라 성취를 해야 좋은 경험으로 인지

## 자기주도적 경험의 가장 좋은 툴 '창업 경험'

### 대학 창업교육

- 경의 방식의 교육
- 대양한 아이디어 발굴
- 단기 캠프
- 프로토타입 제작

### missing link

- 현장/시장 분석 및 이해
- 인터뷰 및 대상에 대한 이해
- 다회차의 MVP 및 프로토타입 고도화
- BM 관련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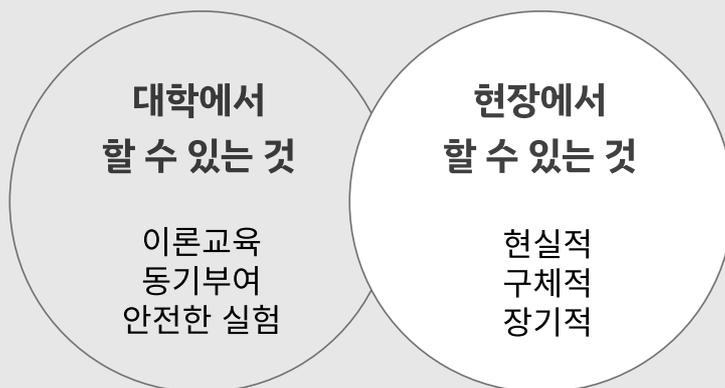
### 창업지원

- 3천만원 이상의 창업지원사업
- BM고도화 인큐베이팅
- 액셀러레이팅 연계
- 초기 시장 진입 및 테스트

- 대학교육과 연계된 실행중심의 프로그램

- 아이디어-> 창업으로 고도화 할 수 있는 사 업비/멘토링이 제공되는 실행기반 기회

# "로컬은 준비안된 청년들에게는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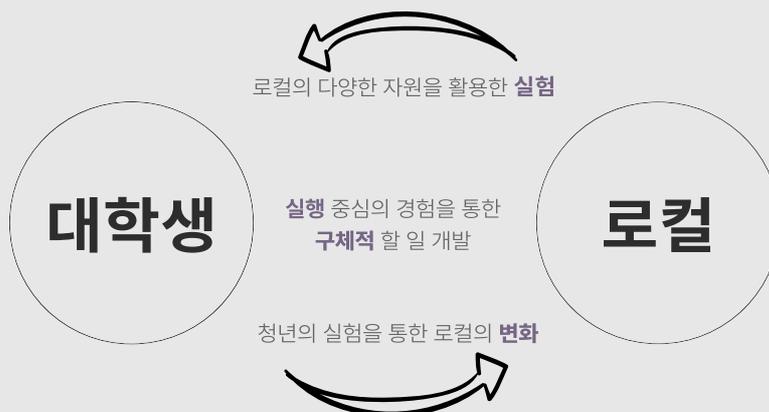
## 서울 밖에서의 일과 삶을 꿈꾸는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경험

# "아주 구체적, 실행적인 경험"



## 미래세대와 로컬의 동반 성장

"서로의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형 환경"



## 배우고 실험하는 로컬의 대학

"로컬을 가장 잘 활용하는 유능한 인재(Local Preneur)의 육성"

### 임팩트 LAB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경험

### 비즈니스 LAB

로컬 기업의 상품/서비스 기획을 통한  
로컬 비즈니스 경험

### 테크 LAB

로컬에 필요한  
적정 기술의 개발

**로컬에는** 새로운 문제의 발굴과 다양한 솔루션 확보  
**청년에게는** 로컬문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이해

**로컬에는** 스토브랜드의 성장 및 이윤 창출  
**청년에게는**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실전 경험과 이해

**로컬에는** 기술기반 문제의 해결  
**청년에게는** 창의적 도전의 기회

## 임팩트 LAB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경험

기존 정책/  
주민 활동

새로운  
상품/서비스

의성군 정책  
주민 자치 활동  
복지기관 서비스

### 로컬푸드 인지도 향상

의성로컬푸드직매장

### 노인대상 스마트폰 활용

의성 노인 복지관

### 제로웨이스트 문화확산

의성읍 주민자치회

### 청년 공간 활성화

의성군청 청년 정책계

### 빈집 슬레이트 지붕

의성군 안계면 이장협의회

### 노인 낙상 예방

의성군 자원봉사센터

### 버스정류장 개선

의성군청 교통정책계

### 보청기 정비

의성읍 주민자치회

### 노인 일자리 개선

의성노인복지관

### 청소년 놀이문화

의성군 청소년문화의집

### 전동보장구 안전 교육

의성군 경찰서

### 버스내 노인 승하차안전

의성군 상인회

## 로컬을 변화시키는 미래세대의 결과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를 통한 성장

### 의성군 버스정류장 개선 아이디어 개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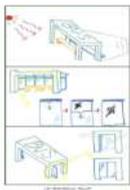
의성군 교통정책계



주요안  
그늘막 부착용 기법 제시(일몰  
및 눈이 오면 시원한 바람  
: 차가운 공기 안에서 숨겨짐)

제 스톱을 통하여 열이 안 들어오면  
일몰이 내리면서 열이 들어오면  
일몰이 내리면서 열이 들어오면  
일몰이 내리면서 열이 들어오면

제 스톱을 통하여 열이 안 들어오면  
일몰이 내리면서 열이 들어오면  
일몰이 내리면서 열이 들어오면  
일몰이 내리면서 열이 들어오면



### 2022~2023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으로 시행(총40개)

도면 설계 및 현장 테스트 참여



# 로컬을 변화시키는 미래세대의 결과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를 통한 성장

**보청기 사용자들을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  
의성읍 주민자치회



**2023 의성읍 주민자치회 안전 채택**  
국내 최초 이동형 보청기 수리서비스



## 이레농원

병잎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품

## 소우당 고택

19세기 고택 활용 여행 서비스

## 솔나라

소나무기름 활용 기능성상품

## 황토메기영어조합

캠핑용 메기어당 밀키트

## 빅토리팜

귀농청년을 위한 고민팜파티

## 어반비즈 서울

양봉농가 부산물 활용 상품

## 농업기술센터

고추용 수확기계 특허 출원

## 향촌당

특색을 살린 디저트 개발

## 호피홀리데이

과일을 활용한 상그리아 키트

## 시니어클럽

어린이들을 위한 모종 키트

## 화이통협동조합

할매꽃차 팝업스토어

## 스테이 네오

마을호텔 패키지

## 비즈니스 LAB

로컬 기업의 상품/서비스 기획을 통한  
로컬 비즈니스 경험

기존 기업  
브랜드/기술력

새로운  
상품/서비스

청년 단기 일자리  
청년 인센티브

# 로컬을 변화시키는 미래세대의 결과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를 통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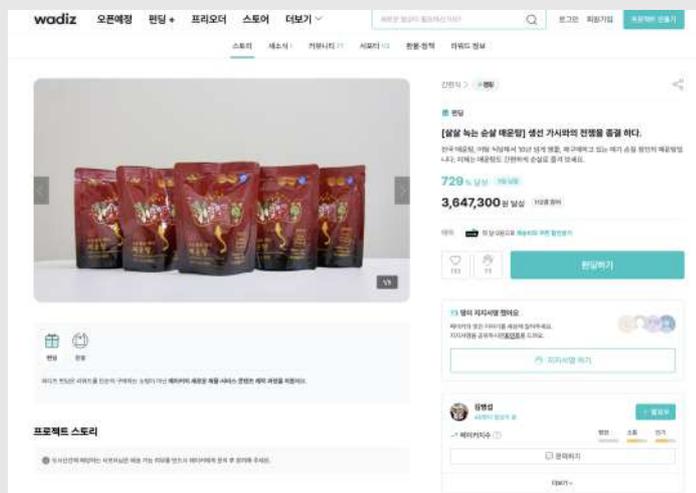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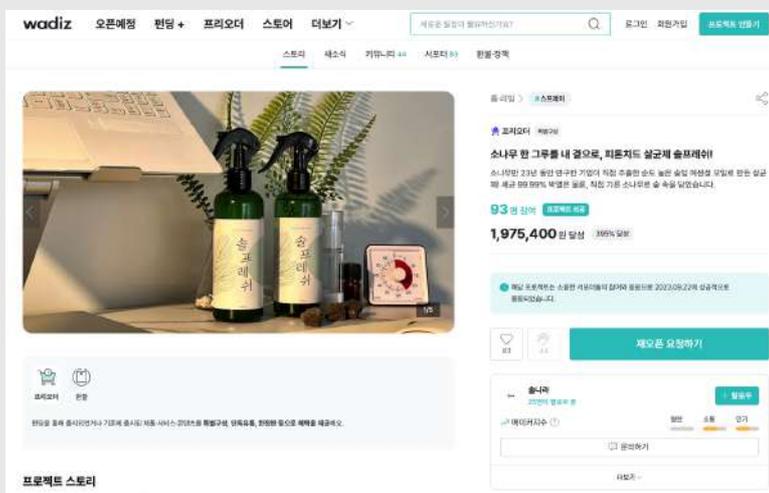
## 마을상품의 디자인/브랜딩 개선 마을+청년의 마을기업 창업



# 로컬을 변화시키는 미래세대의 결과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를 통한 성장

## 로컬 소기업상품의 신상품 개발 경쟁력을 가진 소기업+청년의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 개발



## 로컬을 변화시키는 미래세대의 결과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를 통한 성장

### 로컬 소기업상품의 신상품 개발

경쟁력을 가진 소기업+청년의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 개발

- 부안 특산물을 활용한 다쿠아즈 소노벨 리조트 팝업스토어
- 지역별 특산물 활용 한국식 후무스 개발
- 아스파라거스 브랜딩 팝업



## 의성군청

가정내 노인 낙상 방지 솔루션

## 플라스틱 대장간

농촌형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 작물 다양화

## 테크 LAB

로컬에 필요한  
적정 기술의 개발

관찰을 통한  
문제정의

기술기반의  
솔루션개발

현장 테스트

# 로컬을 변화시키는 미래세대의 결과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결과를 통한 성장

## 의성형 낙상방지 기구의 개발

의성군 노인복지과



## 2023 의성군 의회 복지예산 교부 확정

낙상방지 기구 설계 및 제작 참여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로컬에 필요한 적정 기술 기반의 창업

**산업기반**

하이테크 기반 기술 창업  
지역 산업 관련 창업  
-> 기존의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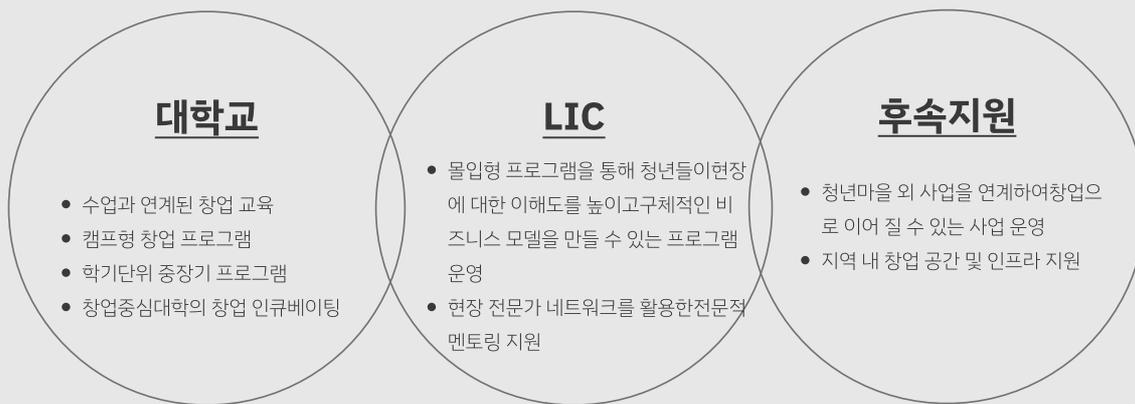
**생활기반**

-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로컬에 필요한 low-tech 개발
- 주민과 지역의 산업~특성과 연계된로 컬만의 지속가능한 BM
- 지역내 오래된 자원들을 활용한승계형 창업

-> 로컬 맞춤형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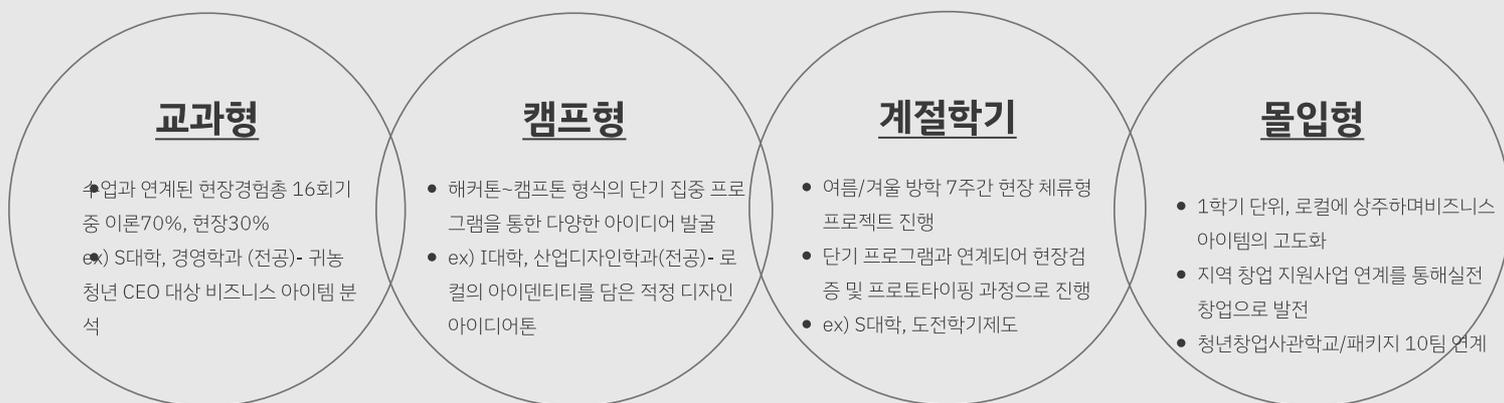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정책간 결합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 후속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로컬임팩트캠퍼스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 캠퍼스

## Signature program I : 창업 교육

### 스핀오프 형 창업 프로그램

- 로컬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기업가들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기반형 창업 프로그램
- 6개월(방학+학기)



청년마을-대학 연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 스핀오프 창업가 육성 프로젝트

### 3~5월 인프라구축

- 3월 : 선배 창업가 모집
- 4월 : 권역별 네트워크 조직

### 5~6월 단기캠프

- 1박2일 ~ 3박4일
- 대학생 간 팀빌딩
- 아이템 및 소재 발굴

### 7~8월 현장 리서치

- 최대7주
- 청년마을 체류

### 9~11월 BM구체화

- 공모전 연계 : 총상금 4천만원 : KT&G
- 창업지원 연계지원금 3천만원: 경북도청

### 1월~2월 창업인큐베이팅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선정 목표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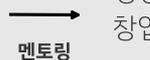
## Signature program : 창업 교육

### 선배기업

고순도 금속 업사이클링



소형 전자제품  
업사이클링



경상북도  
창업지원



연매출 5억 달성  
(2023년 기준)

### 2022년 성과

### 선배기업

소나무 원료 개발



경북특산물 시리즈  
cosmetic 브랜드 개발



경상북도  
창업지원



경북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 선배기업

오미자 원액 생산

### 2023년 성과

### 선배기업

메기 양어장

-원자재 제공 / 연구개발



캠핑족들을 위한  
레토르트 상품  
개발



와디즈  
펀딩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 캠퍼스

## Signature program II : 사회문제해결형 창업 교육

### 사회문제

숙련공이 필요한 제조기업



### 솔루션

외국인 근로자  
교육-관리-매칭 플랫폼



경상북도  
창업지원



용역 수주  
매출 2억원



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 2023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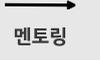
### 사회문제

농촌도시 플라스틱 쓰레기



### 솔루션

농촌에 유용한  
대형 제품 업사이클링



경상북도  
창업지원



시설 구축  
(의성군)



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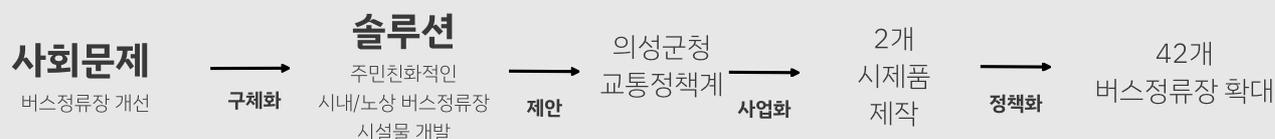
## Signature program III : 정책 개발 형 프로그램

### 사회문제 발굴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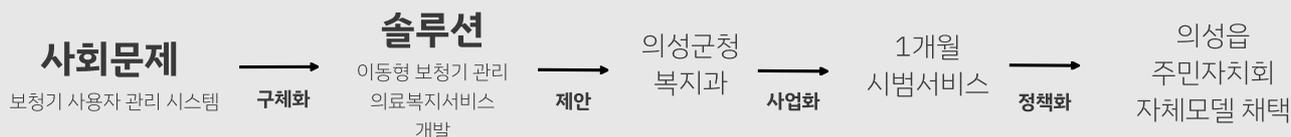
- 로컬 현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기반으로, 관찰을 통한 문제 발굴, 근본적인 문제의 정의 과정을 진행하며 로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개발
- 3개월(방학,학기)



## Signature program III : 정책 개발 형 프로그램



### 2023년 성과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정책간 결합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 후속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

### 경북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극초기 창업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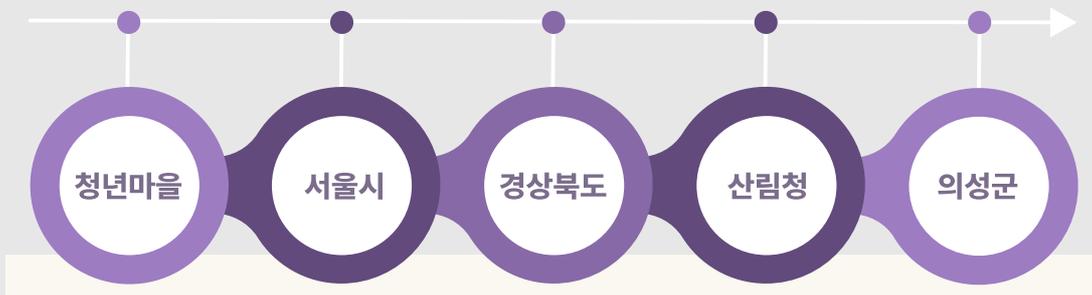


### 중기부 창업사업 선정

예비창업패키지 21팀  
창업중심대학 1팀  
청년창업사관학교6팀  
로컬크리에이터 2팀

로컬임팩트캠퍼스

## 정책간 결합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 지속가능한 배움의 시스템 구축



#### '할 일'의 발견

- 의성 경험 및 이해
- 팀 형성

#### '현장 사례' 학습

- 로컬 사례 투어
- 시제품 기획/제작

#### '지속적' 환경

- 체류활동비 제공
- 창업지원금 제공
- 로컬 멘토단 매칭

#### 실험을 통한 '창직'

- 임업분야 할일 개발
- 협업을 통한 실험프로젝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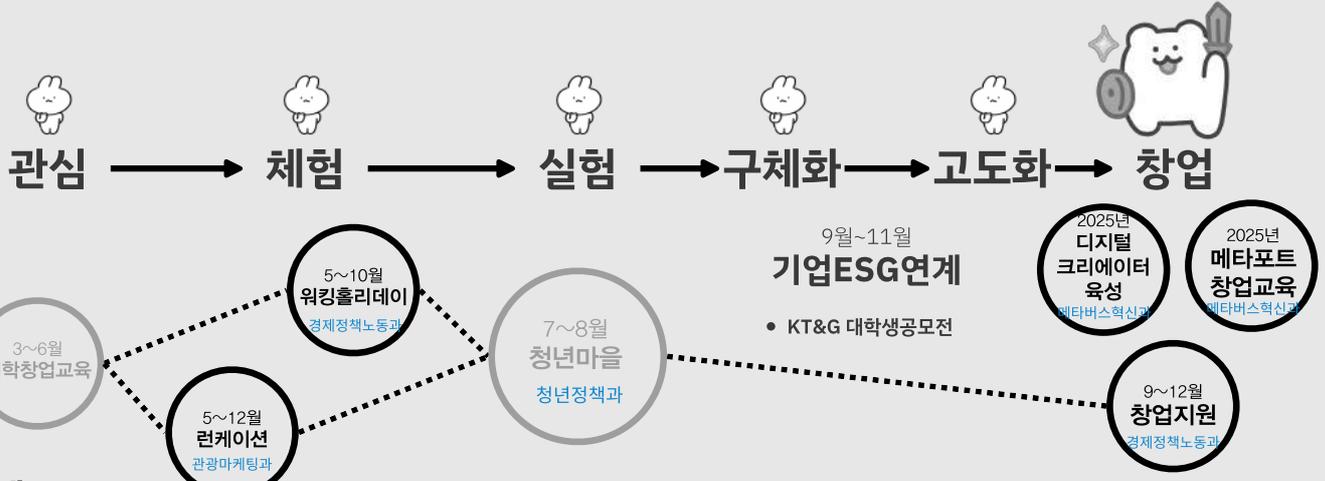
#### '장기적' 도전

- 기업 내 단/중기 일자리 신설
- 창업/취업/정책 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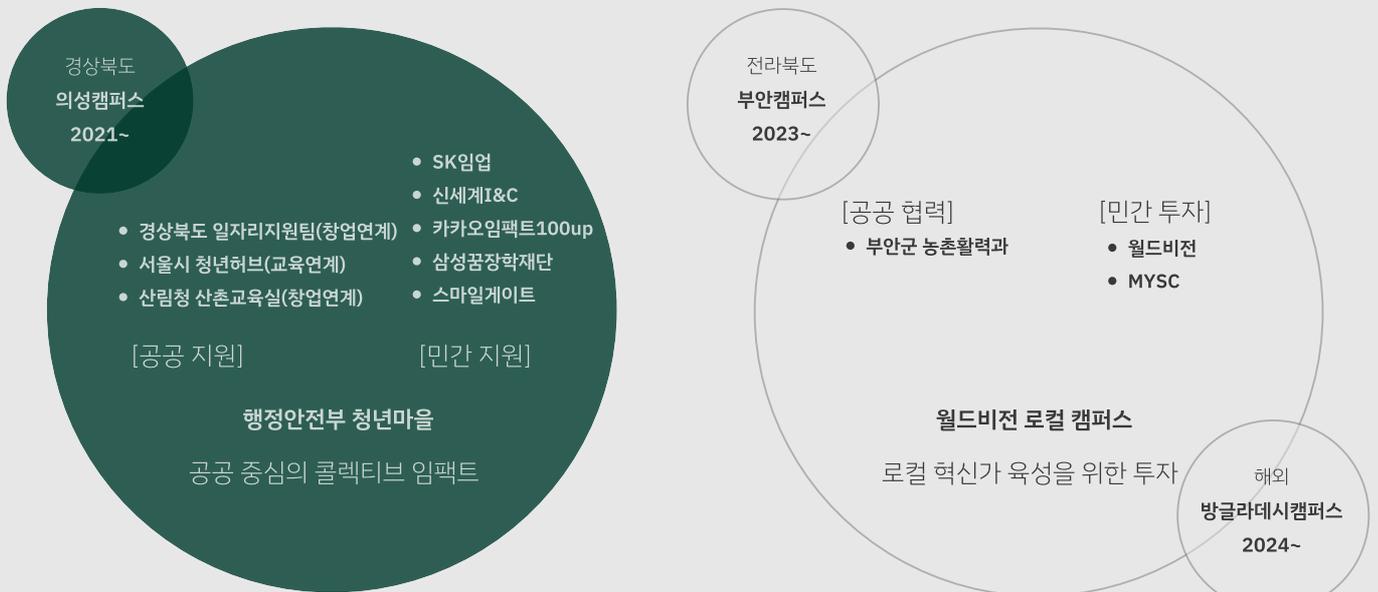
로컬임팩트캠퍼스

# 정책간 결합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 지속가능한 배움의 시스템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로컬의 대학

# 로컬임팩트캠퍼스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로컬임팩트캠퍼스 핵심 거점



강원 강릉시

THE WAVE COMPANY



동남 부산시

그그 plan



충청 대전시



충청 아산시

ONUS



영남 의성군

&mentory



충청 괴산군

moha nong



호남 부안군

World Vision



영남 영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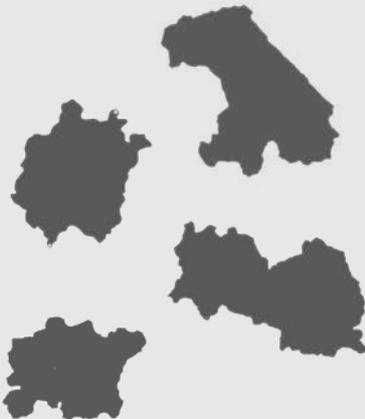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로컬임팩트캠퍼스 핵심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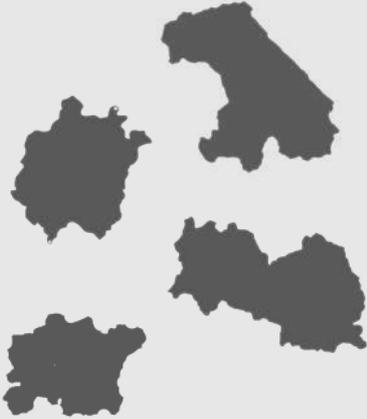
### 거점별 연계 사업을 통한 후속 창업 지원

- 거점 캠퍼스가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제공\*아이디어 해커톤 프로그램(5), 창업지원사업(3) 운영 (2023년 기준)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로컬임팩트캠퍼스 핵심 거점



### 거점 캠퍼스 중심의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구축

- 거점 캠퍼스를 중심으로 권역별 청년마을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과 협력 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
- 거점 별 네트워크와 자원 풀 관리를 진행하며, 연 2회 콘텐츠 및 네트워크를 모든 거점들이 공유하며 서로간의 협력 콘텐츠 발굴

### 거점 연계를 통한 성과의 통합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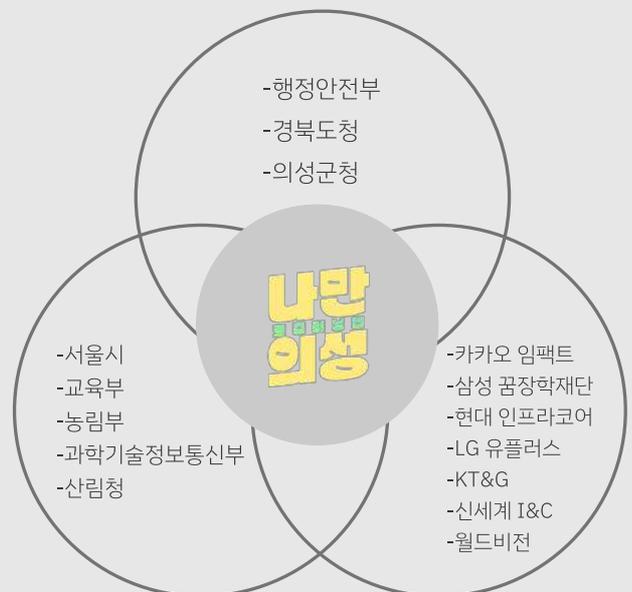
-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과 관련된 체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거점 캠퍼스와 청년마을, 거점 캠퍼스간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투입

현장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 거점

## 다양한 주체간 콜렉티브 임팩트

"청년의 성장을 통한 로컬 활성화"

정부+지자체+민간  
공통의 목표 수립을 통한 협업



로컬임팩트캠퍼스

## 정책간 결합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 지속가능한 배움의 시스템 구축

"청년조직의 성장을 통한 유입청년을 위한 안전망 확대"

지역살이+창업지원+로컬AC/VC  
수행역량 업그레이드를 통한 청년 사업 개발



### 청년마을 성과 국내/외 확장

- 경북도청  
청년창업가 육성
- 교육부  
SCOUT 사업단
- 전북 부안 캠퍼스  
with 월드비전
- 방글라데시 캠퍼스

## 지속가능한 일을 배우고 만드는 로컬의 대학 구축

씨앗 뿌리기(22년)

"청년들의 실험공간, 로컬관문"  
(로컬 기반 공동체 형성)

모델 만들기 (23-4년)

"로컬 비즈니스의 새로운 거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비즈니스화)

성과 도출하기(25-26년)

"로컬 임팩트 허브로 자리매김"  
(생태계 확산 및 성숙)



사례발표(교육)

#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활동 : 뿌리 내리는 청년, 꽃피는 농촌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대표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사회적농업

## 청년농촌 정착 플랫폼 활동

뿌리내리는 청년, 지속가능한 농촌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 1. 활동의 배경과 필요성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

# 농촌의 현실

정책의 실패?

인구과소화

초고령화

마을이 양로원



지역소멸

시장 실패

배달깡

이동장애인

구매난민

청년마을

## 살고 싶은 농촌

##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는 마을

### 0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자긍심의 회복-가치의 전환
2. 새로운 삶의 생태계
3. 교육, 문화, 의료, 복지
4. 이동권 보장
5. 문화가 있는 마을

### 02. 사람의 선순환

1. 젊은층의 유입
2. 사회적경제 생태계
3. 자아성장 and 실현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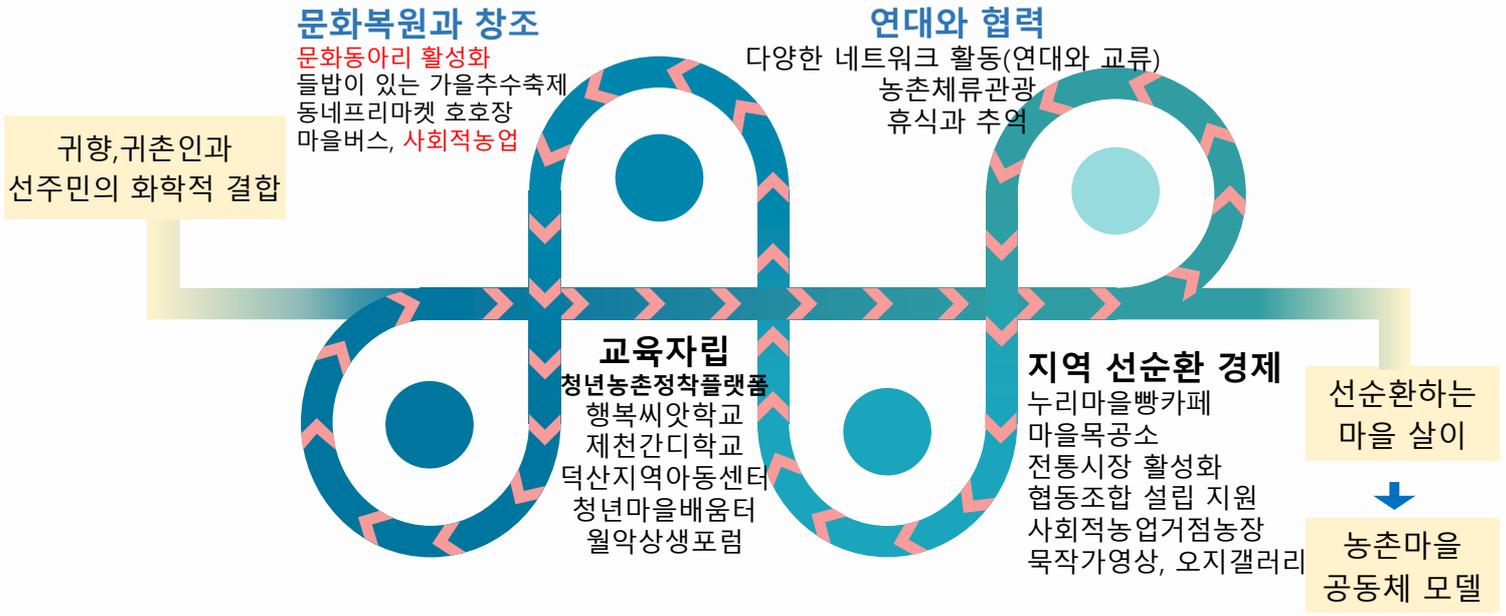
### 03. 자원의 선순환

1. 관계망에 의한 생산과 소비
2. 기본소득
3. 자원의 선순환
4. 생태주의적 관점 확산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청년마을

#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 만들기



## 사람의 선순환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농촌에서 사라진 10대 후반 40대까지 청년은 어디에 있는가?(2013년)

↓ 교실붕괴, 헬조선, N포세대, 소확행, 공정

세계10위권 경제대국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거주할 공간과 일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2014년)

↓ 공유지, 공유주택, 사회적경제, 청년 생태계...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

지속가능한 농촌, 청년 생태계를 위한 뜻으로 이어지는 공유지 운동 (2014년)

↓ 2015년 사별 부인 보험금 1억기부로 공유지 활동 시작 현재 6000평

2017년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활동 시작

↓ 2018년 사회적농업 시범 사업에 공모(~2022년까지,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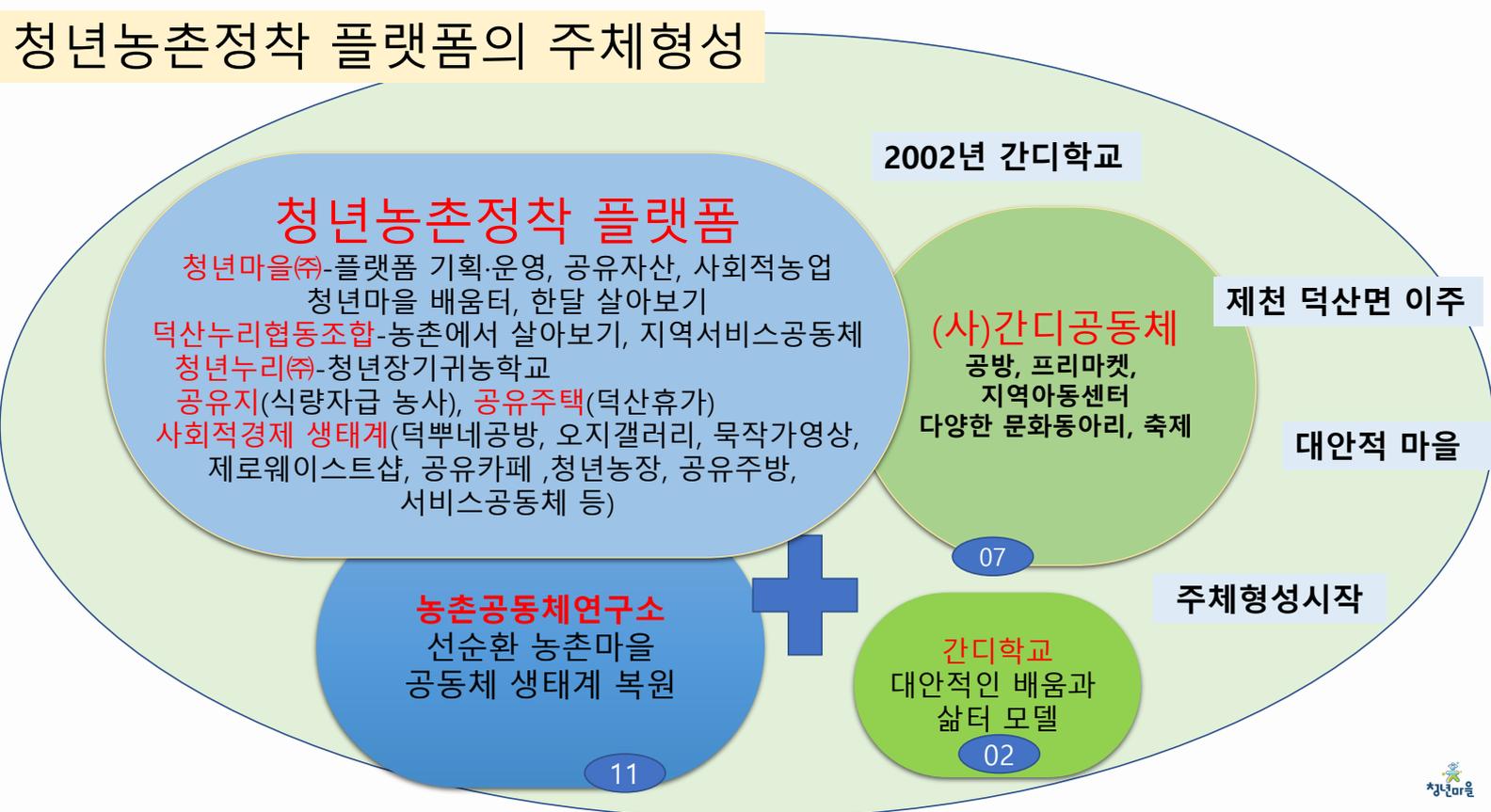
2024년 현재 18명의 청년, 덕산에서 활동

공유주택 덕산휴가 (1채 리모델링, 1채 신축-민관협력, 소셜펀딩(247명 1억4천만원))



## 2. 청년농촌정책 플랫폼 활동

10여년 마을공동체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농업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



## 18년 사회적농업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통합하는 농업 실천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재활·교육·돌봄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의 지닌 영농 활동

- ※ 농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농민들의 자발적 실천
- ※ 공공 정책 및 제도와 결합된 실천:  
예) 자활 영농사업단, 사회적 기업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중 일부,  
농업 분야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일자리 제공, 농업직업교육, 돌봄 등

공간적 약자인 농촌과 사회적약자인 청년이 만나 농업농촌을 매개로 서로를 살리며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과 삶이 되도록 하는 농업을 매개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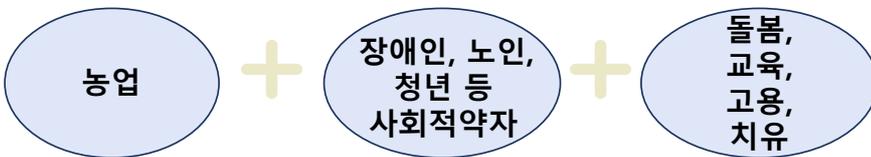
김정섭박사 발표문 중에서

## 사회적농업 24년 (사회적 농장+주민 생활 돌봄공동체)

### 사회적 농장

2024.08.17 발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통해,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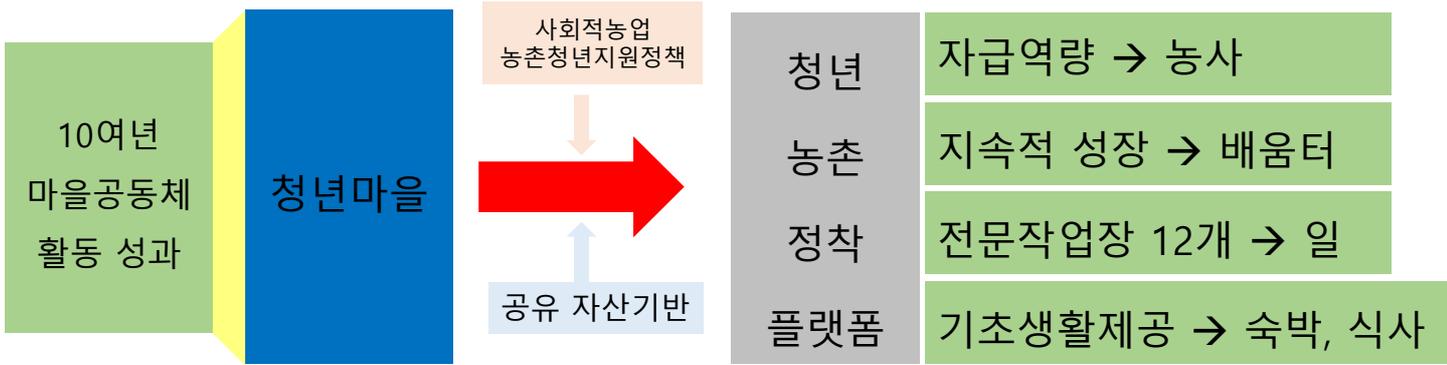


### 농촌주민 생활돌봄 공동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출발



## 청년마을(주) 시설현황



## 청년마을의 사회적농업 활동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 1. 청년 농부프로그램

- 1) 청년농부 프로그램 - 1회 4시간 주3회 6명
- 2) 바보농장 - 덕산에 정착한 귀촌인의 만족도 증가와 청년멘토
- 3) 덕산초 농사체험 - 다시 덕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제공

### 2. 청년마을 배움터

### 3. 청년마을 작업장



## 청년농부



# 바보농장



# 덕산초등학교 농사체험



# 청년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농촌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청년이 배우고픈 내용을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

## 제 5기 청년마을 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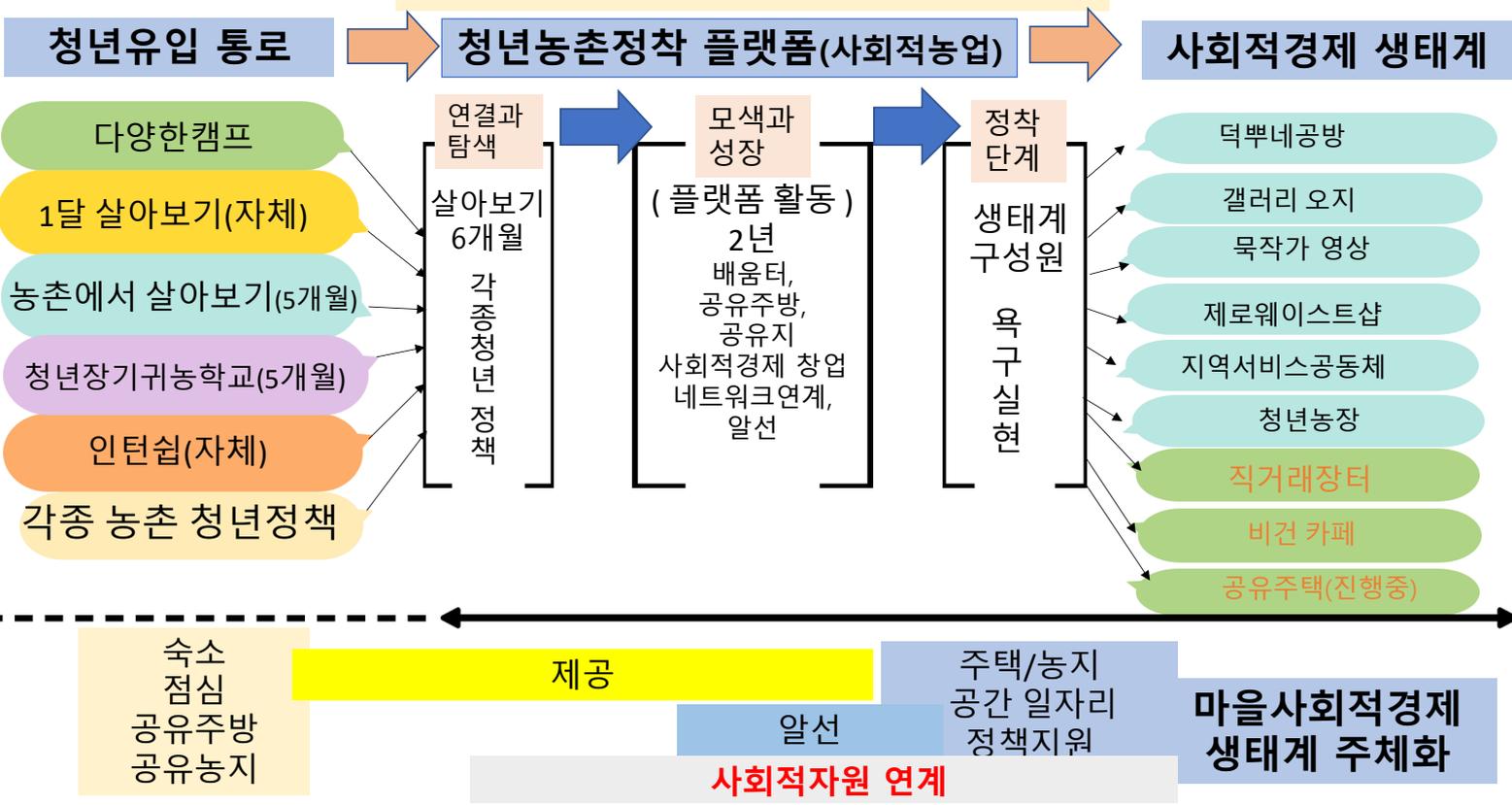
주최 | 농림회사법인 청년마을(주)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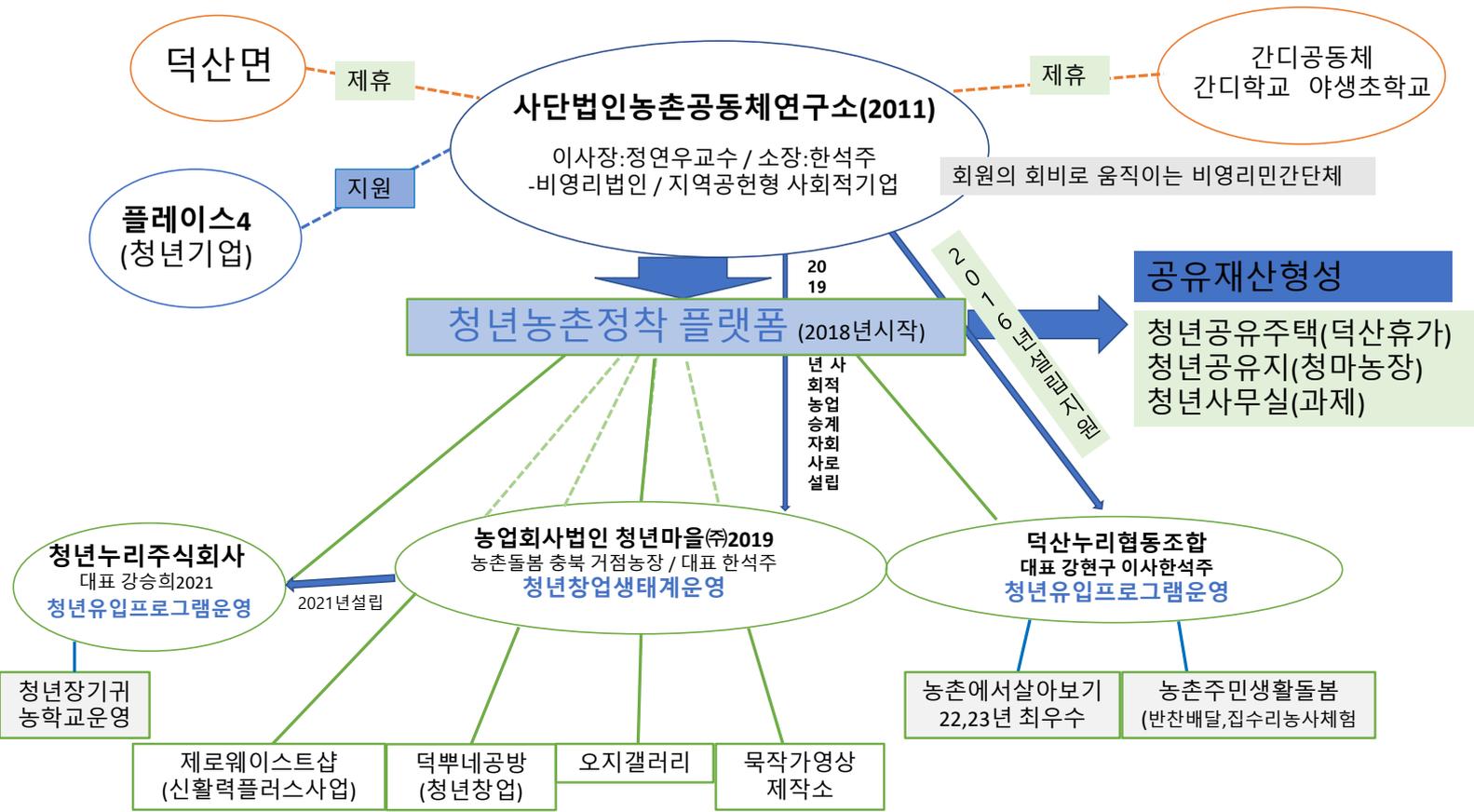
<b>영어책 스다방</b> 내용 영어로 '어떤말이' 읽고 말하기 일시 11/17-12/24, 매주 화요일 19:00-21:00 장소 영암읍 새마을문화소 105-1, 2층(제92호) 신청 010-7576-3892 (이우영)	<b>이병곤 교장과 함께하는 독서토론</b> 내용 읽게, 생각한 책 읽고 토론하기 일시 11/16-12/25, 매주 수요일 19:00-21:00 장소 영암읍 새마을문화소 105-1, 2층(제92호) 신청 010-7542-1623 (한진희)	<b>아이!아이! 그림교실</b> 내용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말거나 그림을 그려 보아요! 일시 11/17-12/22, 매주 일요일 18:00-20:00 장소 영암읍 새마을문화소 105-1, 2층(제92호) 배교 교동차에 차량 대여 가능, 온도 이해 수습으로 진행
<b>발효교실</b> 내용 약갈래, 오디 발효액, 오디 와인 만들기 일시 11/18-12/2, 매주 월/목요일 16:00-18:00 장소 영암읍 새마을문화소(제92호) 신청 010-4819-0268 (전유진)	<b>노티나무와 함께하는 요리교실</b> 내용 식당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 만들기 일시 11/18-12/20, 매주 월요일 10:00-13:00 장소 영암읍 새마을문화소(제92호) 신청 010-7576-3892 (이우영)	<b>스마트폰 영화 만들기</b> 내용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기초과정 일시 11/17-12/20, 매주 목요일 19:00-21:00 장소 영암읍 새마을문화소(제92호) 신청 010-5602-2354 (이현하)

강의 제목	강좌수
동양고전	24강
영상교실	32강(아동, 청년, 노인)
페미니즘	10강
동물권	5강
일본어는 처음이라	32강
영어수다방	24강
독서토론	24강
수상스키	6강
그림교실	24강
발효교실 (술)	18강
요리교실	32강
친환경 자재	6강
천연염색	6강
서예교실	18강
목공교실	12강
우드카빙	3회
약초교실	6강
배드민턴	6강
아카펠라	12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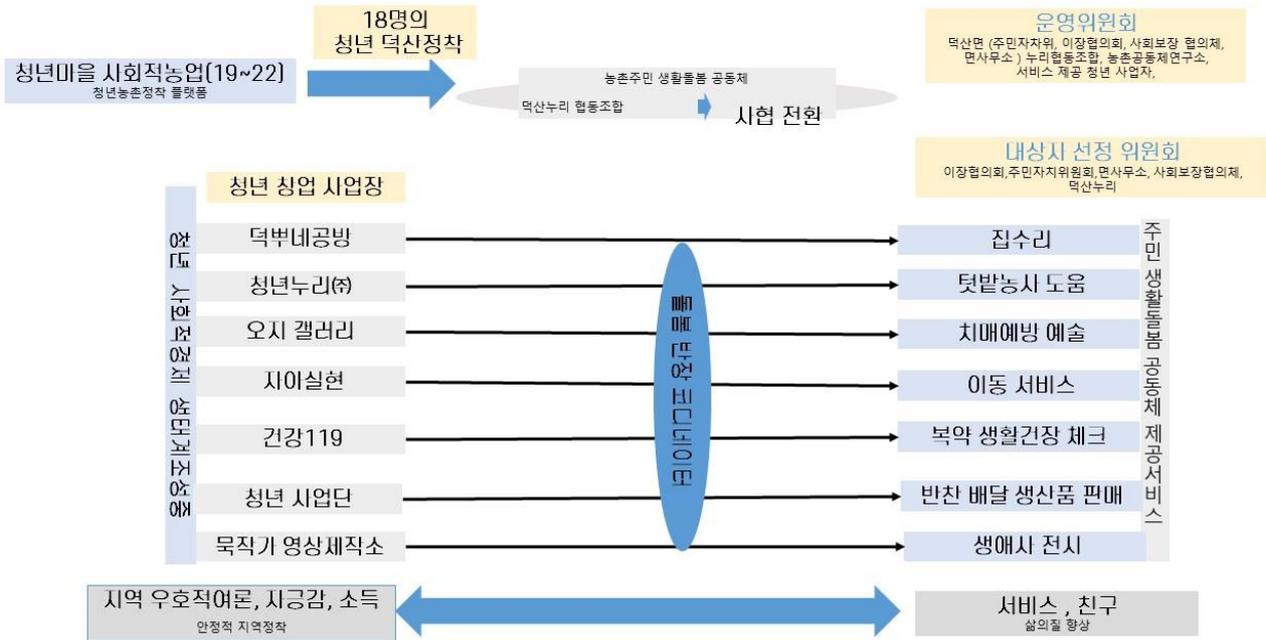
## 청년농촌정착플랫폼 구조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농촌주민생활공동체를 통한 활동





### 청년마을(주) 사명은,

초고령화 과소화하여 사멸해가는 농촌에

도시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꿈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하고

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농촌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돕는 일이다.



## 청년마을 청년정착 플랫폼 7년의 성과와 과제

### 성과

- 1. 20년 대안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새로운 청년 생태계 태동
- 2.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시공간적으로 입체적 지원 플랫폼 활동 시동
- 3. 공유지를 비롯한 청년정착 플랫폼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인적 네트워크기반 조성
- 4.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현재 청년 18명 활동중

### 과제

- 1.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 구조 구축
  - \* 자체 수입 방안 - 농장운영, 플랫폼기업 수익기부, 회비
  - \* 공익적 활동 - 공적자금
- 2. 공유자산 확보
  - \* 공유공간 - 커뮤니티 공간, 공유 숙소
  - \* 농지 확보
  - \* 공유기금
- 3. 사회적농업 경험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주역으로 성장하기(서비스 공동체)
- 4. 청년 농촌생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5. 마을 속에 뿌리 내리기

### 3. 청년농촌정책 생태계조성

## 농촌에서 청년이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2024년 청년마을 계획

현재18명의 청년이 덕산에서 정착하여 활동중

#### 1.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공유주택 조성-예산 편성

1) 단기 대책: 덕산쉐어하우스 조성-20평형 빌라(월세20만원, 5년 전 확보)

2) 중기 대책: 덕산 휴가-신축10평형 원룸2개 신축+20평형 구옥 리모델링

3) 장기 대책(5년): 청년삶센터-제천시와 기금사업 논의 시작, 빨라도 4년후 완공

#### 2.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청년배움터 유지 운영 - 예산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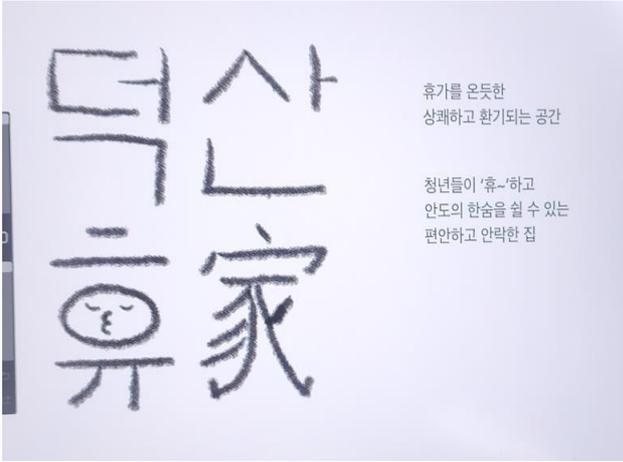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청년 창업 생태계 확충 및 운영지원-사회적경제 학교 유지

#### 3.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

자립을 위한 농사와 교육, 공동주방, 공유 농지 유지

# 덕산 청년 공유(주택, 작업장)자산 만들기 운동



## 공유주택

1. 유입 프로그램 숙소 방 16개(2년 단위 임대)
2. 덕산쉐어하우스(23평 빌라, 월세)
3. **덕산휴가(10평형 원룸 4채)**
4. 청년삶조성센터-기금활용 제천시와 협의중

## 공유 작업장

1. 덕뿌네공방
2. 마을 창고
3. 공유지-6000평, 하우스 6동

민관 협력 방식지향, 관의 지분을 49%이하로, 소셜 펀딩 방식의 공유자산 확보

청년농촌정착 생태계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토지와 주택 공유자산, 선순환 경제 돌봄 생태계 조성



## 농촌 청년공유주택을 만드는 일에 벽돌 한 장 놓아주시시오

농촌 청년공유주택 마련 벽돌 한 장 쌓아주시며  
석정시집 <짚돌 하나, 벽돌한장>을 드립니다

제천시 덕산 농촌에 청년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청년 귀농학교와 농촌 살아보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살 집을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청년마을에서는 청년들과 농촌에서 살아갈 집을 함께 마련하는 청년공유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짚돌 하나, 벽돌 한장> 석정 시집을 농촌 청년 공유주택을 마련하는 일에 벽돌 한 장으로 사용하러 합니다.



- 1부 : 시대의 황량함에 대하여 ■ 2부 : 진보의 부활을 꿈꾼다
- 3부 : 변하는 세상, 남아버린 의식 ■ 4부 : 희망을 버리지 못함은

청년들의 농촌 공유주택을 마련하는 일에, 뜻을 모아주신 분께  
<짚돌 하나, 벽돌 한장> 석정 시집을 보내드립니다.

**석정 시집 벽돌 한 장 가격 : 2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55-0065-9721-93 예금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 5만 원 이상 입금해 주시면, 손글씨로 쓴 필사본 석정시집 함께 보내드립니다.

겨자씨石正 최상일 : 청주시 내수읍에서 태어나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중년이 된 지금 더 많이 웃고, 더 남의 말 잘 듣고, 더 부드럽게 살며 곁에 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멈추시오, 수돗물불소화'를 썼고 석정 시집 11권을 내었습니다.

## 덕산휴가 소셜펀딩 참여 의향서

농촌 청년 공유주택 '덕산휴가' 소셜펀딩에 아래와 같이 동참합니다.

### ◆ 개인정보

이름	성별	남( ) 여( )
주소		
연락처		
e-mail		

### ◆ 대여 및 기부 신청내역

대 여	기 부
대여금 ( )백만원 대여조건 : 무이자 3년 약정 입금 예정일 : 2024년 월 일	일시후원 ( )원 정기후원 ( )원 / 월

리워드  
- 덕산휴가 입주 벽에 시민건축주 이름을 새겨 뜻을 기억합니다.  
- 청년들이 농사지어 만든 농산물꾸러미를 보내드립니다.  
- 청년마을 행사에 소중한 이웃으로 초대합니다.

입금계좌	출자금 : 농협 : 351-0401-6925-53 사단법인농촌공동체연구소
기부금	농협 : 351-0401-6932-93 사단법인농촌공동체연구소

정보제공동의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CMC 처리에 필요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시 필요
서명	(인)	

◆ 문의 : (사)농촌공동체연구소 한석주 소장  
010-8838-3740 e-mail : farmcommunity@daum.net



## 내 손으로 짓는 전원주택 목조주택 건축학교

한국사회주택협회, 덕산 청년마을(주)과 함께하는 제1기 목조건축학교

제전으로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될 원룸 2개소(65.6m<sup>2</sup>)  
목조주택 전문가와 함께 이론과 실습을 통한 목조주택 함께 짓기!

함께 집 지으러 제천가자~  
선착순 5명!!!

- 내 손으로 목조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
- 집짓기를 배워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은 사람
- 집짓기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입학원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금 기준으로 정원을 마감합니다.  
정원 초과시 원서 검토 후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참가자를 선별합니다.  
심사기준이 되도록 입학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선사에서 보류된 분은 교육비금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기간: (변경) 7월 29일(월) ~ 8월 9일(금) 주말 제외 총 10일
- 교육장소: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목조건축 현장
- 신청방법: [bit.ly/2024건축학교](https://bit.ly/2024건축학교) 혹은 [soldungji@empal.com](mailto:soldungji@empal.com)
- 수강료: 70만원(80% 이상 출석시 40만원 정도 환급)  
※ 강의 진행까지 등록을 취소할 경우 100% 환불, 시약 후 환불 불가
- 지원사항: 숙소와 점심 제공  
※ 교재, 현장벨트, 공학용 계산기, 스피드스퀘어, 망치, 손톱루, 몰타 등 30만원 상당의 개인공구 제공



문의: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함석호: 010-7297-1332, 청년마을(주) 한석주: 010-8838-3740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농촌도체  
연구소  
Farm Community Laborator



## 주거 소통 사전 대담 후속

**주요 내용** 소통시스템 '정보전달물' 사용 도입 (시범운영) 2년의 숙소 사용 이후 주거 고민, 새 건물을 짓는 것 외의 공간 확보 방법도 고려가 필요하다. 새로운 입주자와 기존 거주자, 퇴소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면내 주거공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원한다. 숙소는 공유/공동 자원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주거 인원을 보호하고 의견을 대변해 대응력을 가질 자치기구가 필요하다.

**논의 내용** 2차 주거 소통 대담 방식 공유 날짜 정하기 방식: 덕산과 농촌에서의 주거에 대한 고민 및 궁금한 점을 수집해 불고에게 사전 전달한 후 대담회에서 충분히 준비된 답변과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다. 함께해 주실 분: 김수동 소장님

## 자치 활동

주거 소통 사전 대담 건물 바로 거기 스티커

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원천기술개발사업 종합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 부서이동



관리부

청년마을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한 고민서툰 시도



행사부

구성원 간 관계를 이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투민회

파란한 '먼력(오지랴)'의 맛..

### 덕꾸리단 (행사부) 소개

덕꾸리단은 청년정착플랫폼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 간 관계를 이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담당 활동

월 1회 생일자 생일축하(케이크 나누먹기, 생일카드 준비) 및 문화의 날 기획 운영, 연말 송년회 등등을 맡습니다.

## 관리부

### 멤버

유미(대표), 이현(서기), 영일(총무), 영원(특별이), 불고 (이렇게 다섯명이 있었는데요 없 습니다...^^ 현인원 2명, 사실상 1 명.)

### 하는 일

청년마을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한 고민+서툰 시도

관리부가 지난 3개월간 시도한 일

청소구역에 대한 매뉴얼 만들기 분리수거 당번제 도입

## 마 당 발 역 할

### 정기 반상회 운영

매달 마지막 목요일, 서로이웃이 모이는 자리를 만듭니다!

### 서로이웃의 애로사항 청취

온라인 건의함 운영, 대화자리 마련 등 서로이웃이 덕산에서 생활/활동하며 느끼는 불편함을 듣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마을공동체

## 마당발이 한 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로를 부르는 명칭 '서로이웃'을 정하고, 생활규칙을 함께 기다리는 등 함께 살아가기 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2~4월 반상회 진행

대화자리 마련

어라? 이런 다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줬는데? 하는 주제가 생겼네요! 그럼 마당발에게 제안해주세요! 마당발은 3월부터 주가와 관련해 관심자를 모아 대화자리를 마련하고, 진행했어요.

세탁실의 자석 보셨나요? 건의함에 들어온 제안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건의함 운영

생활규칙 정리 및 알림

세탁기는 10시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라벨을 제거해서! 이런 생활규칙을 수집하고 정리에 알렸어요.

## 덕산면 청년마을 사례의 특징

대안적 마을공동체 운동 바탕

- 첫째, 각종 정책이나 사회적자원을 모아 청년개인에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 둘째, 프로그램 운용단계에서는 주거 문제와 식사 문제, 교육장 전문인력 해결
- 셋째, 청년들이 안전한 공간,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생활, 교육환경 조성
- 넷째, 단기적인 생계 대책부터 장기적인 일을 찾을 수 있는 길 안내
- 다섯째, 청년들의 욕구와 지역의 욕구를 연결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의 창업 지원 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육성

## 덕산면 청년마을 사례의 장점

1. 청년이 자신의 욕구를 찾아 건강한 농촌주민이 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은 건강한 농촌주민으로서 삶을 익히고 지역사회는 새로운 주민을 양성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높인다.
2.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3. 국가는 도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며 농촌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법이 된다.
4. 청년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며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여 사회전체에게 희망을 준다.

## 덕산면 청년마을 사례의 과제

1. 새로운 농촌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철학적 담론의 형성과 정립이 필요  
선순환(경제, 돌봄, 문화)하는 사회적경제
2. 인력과 물적조건(경작지, 주거공간, 공유사무실과 작업장)을 만드는 일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벗어난 공유경제
3. 새로운 삶의 생태계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청년과 지구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삶

토론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 사회적경제 지형도의 재구성

전충훈(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사회적경제는 구조이자 시스템인데 조직과 발현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실행이 대부분이었다. 구조와 시스템을 위한 것이거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선구매 같은 조달 영역 외에는 그닥 눈에 띄는 정책은 없었다.

생태계는 인재에서부터 시작해 이들이 씬에 착근하고 덩치를 키우면서 씬이 확대되고 확산되는 판이다. 그런데 스타트업 생태계나 기술 창업계에서 말하는 “인재”와 사회적경제의 “인재”는 분명히 다르다. 다른데, 거의 똑같이 육성해왔다. 사실 사회적경제의 “인재”는 DNA가 다르다. 이타적 유전자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공공선의 실현이 나와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구조를 심화 학습시키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약진할 것인가를 체득하게 하는 인재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씬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양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인재의 본질은 제쳐두고 육성을 하다보니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트랙 중의 하나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세상이 평평해지면서 글로벌의 흐름과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상호 전송되면서 대중들의 눈과 귀는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가치 소비가 의미있다는 것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경제의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원망(?)해왔던 대중들은 이미 좋은 곳에 도달해있지만, 행정과 선수들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행정은 반짝이는 콘텐츠와 사업을 만들 필요도, 실행할 이유도 없지만 실적과 성과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회적경제를 정부의 운영방식과 사회 전반의 구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콘텐츠와 사업은 민간에 맡기면 된다. 민간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장애물을 치워주고, 견고한 판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내가 잘 살기 위해 연대한다’는 프레임을 교육에 이식해야 하는게 행정의 역할이다.

활동가들은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대충 만들면 되지 않는다. 지역의 고유성을 품고 담아내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의 질은 대중적인 것들을 상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주민이, 사회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은 준비된 세계다.

토론

민영 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상임이사

#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한국의료사회협연합회/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이사 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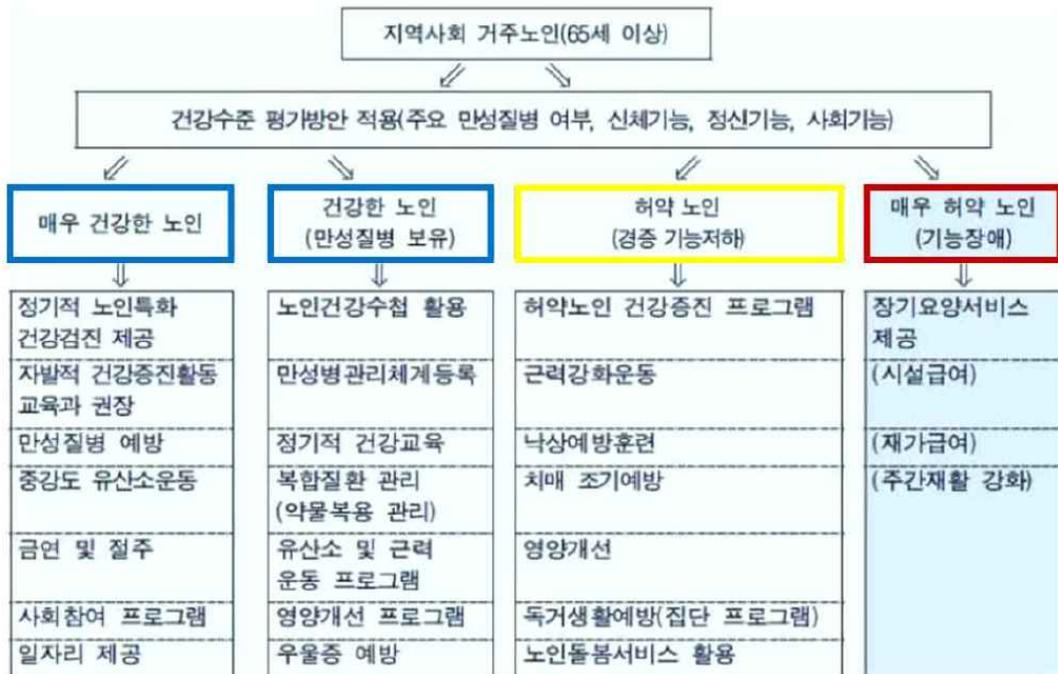
## 1. 의료돌봄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가치

- 고령화 저출생 사회, 1인가족 => 만성질환,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
- 지역 : 고령화, 지방소멸, 마을이 양로원
- 의료복지 비중과 비용의 급증 문제
- 삶의 질
- 의료돌봄은 필요한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가치재
- 민간시장 의존 : 의료 90%, 돌봄 99.1%
- 공공적 의료돌봄의 필요성 -> 정부지자체의 파트너
- 협동조합이 다양성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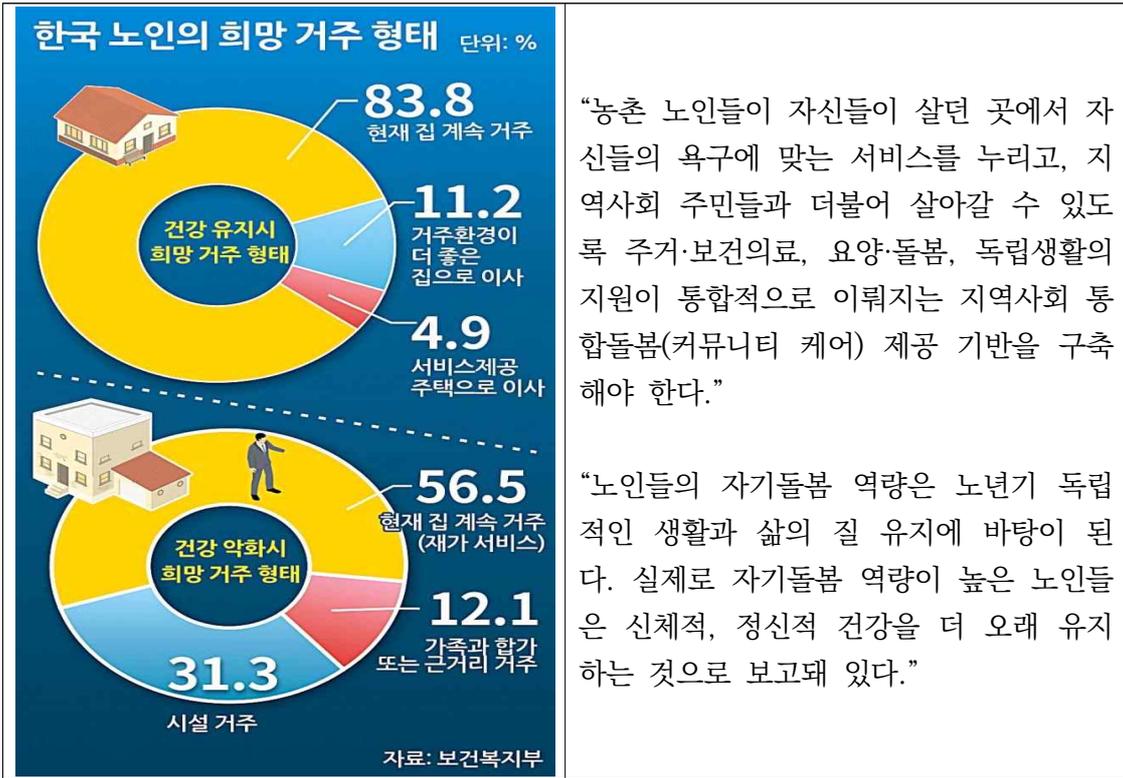
## 2. 고령화 저출생과 노인의 삶

### 1) 노인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 노인은 아프다, 아프지 않다고 구분될 수 없다.
- 노인은 65세 이상, 65세 이하로 구분될 수 없다.
- 노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2) 살던 곳에서 살다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농촌 노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들의 자기돌봄 역량은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 유지에 바탕이 된다. 실제로 자기돌봄 역량이 높은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3. 의료사협의 의료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

1) 의료생협에서 의료사협으로

1994년 안성의료생협 - 무의촌에서 진료, 방문진료, 보건예방활동 등 일차의료의 실현 (보건의료운동 + 농민운동 + 협동조합운동)

1997년 인천평화의료사협 - 노동자들을 위한 의원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2024년 현재 전국 27개 의료사협

조합원 65,255명, 출자금 약 195억원, 활동조합원 6,700명, 건강모임 376개, 매출액 643억원, 건강리더 1,363명, 취약계층지원금 358백만원, 직원수 1,804명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2024년 총회 자료집-

2) 일차의료기관이 있으므로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 영역

**의료사협 일차의료기관 보건의료돌봄사업 영역**

의료기관 : 건강보험

돌봄사업: 장기요양보험

1차의료기관 : 가정의학과, 내과, 검진/한의학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24.9.본사업)

재가의료급여 사업 (24.7 본사업)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간호사업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자체 연계)

가치기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모형 사업(시범사업)

요양원축탁의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재택의료(방문간호+다학제연계)

확장 가능 사업

재원 및 관련 부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자체(바우처)

노일일자리(공익형+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건강돌봄조직활동(노인건강돌봄지도사)

복지부 민간자격증

고령자 안심주택/도시재생

국토교통부, 지자체

가정형 호스피스

복지부, 지자체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방향**

1) 의료/돌봄/주거/거주환경 통합적 돌봄 필요

- 노쇠를 최대한 늦추며 재미있게 살다가 : 노인의 개념을 바꾸어야
- 늘 만나는 사람이 있고 : 조합원 공간, 커뮤니티공간,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노인회관
- 찾아올 수 없다면 찾아가는 의료돌봄: 보건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등
- 병원에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회복이 되어야 하고 : 중간집
- 혼자 살 수 없다면 같이 살고 : 그룹홈, 너싱홈, 단기보호센터,
- 좋은 돌봄은 좋은 주거환경에서 : 주거개선사업, 안전한 거주환경
-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마을을 돌보는 건강자치역량 강화

2) 정부 및 지자체는 이 일을 누구와 할 것인가?

- 이게 민간의 힘만으로 할 일인가?

=> 공익적 파트너를 만들고 키우고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투자하여야 한다.

- 2005년 사회적일자리 <- 요양보호사 이전 방문 돌봄, 목욕돌봄 자원봉사활동

- 2007년 사회적기업 <- 1994년 안성의료생협 외 개의 의료사협, 성과 축적

- 2017년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 팀기반 방문의료 수행

- 2023년 재택의료센터 제1회 시범사업 28개 중 의료사협 10개 시작 =>2024년 총17개 진입

\*안산 : 재가의료급여, 재택의료센터 등 시범사업 설계, 제도화



## 5. 의료돌봄에서의 민관 협력 사업 확대 방안

1)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솔루션에서 사라지는 의료돌봄

\*24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사례

### ① 태안 남면

8

## 1-2. 공감스테이션 주민 의견수렴 워크숍

마을 내에서 교육 및 기술 습득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마을별 희망 생활서비스 우선순위

마을 이름	마을별 희망 생활 서비스		
	1순위	2순위	3순위
당암1리 (당미어촌계)	· 컴퓨터,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습득 프로그램 교실 (카카오톡 제외)	· 치매예방 교실, 한글교실 (마을 내 70세 이상 연령 80%) · 어르신 체조교실 ("요가 교실")	· 바지락 체험장 체험지도사 양성 과정
당암2리 (당미어촌계) 원청리 (원청리어촌계-별주부 마을)	· 보건소 의사 상주 (응급상황 시 조치 가능한 분 있었으면 함)	· 요리교실(재료 준비를 해놓으면 각자 요리 만들어 먹는 시간) · 자세한 진행 희망 프로그램 내용은 추후 재방문하여 인터뷰 예정	· 마을 영화관 운영 ·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교육 · 농사와 관련한 지식 습득 필요
신온3리 (곰섬어촌계)	(우선 순위는 정하지 않음)		
	· 치유 프로그램 진행(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심리상담, 함께 음식 먹기, 마음 열기 우선) · 한서대와 마을 주민들과 논의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설(학교에서 서비스 지원) · 어르신들을 위한 빨래 봉사		

남면 시범사업 현황 소개

11

## 2-2. 주민 공동홈 시범운영

“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어. (공동홈이 있으면) 일부 노인들은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사도 줄이고, 보살필 수도 있고, 같이 있으면 좋지.”



**공동홈 운영 주체 발굴**

- 공동홈 운영단체를 지역주민(부녀회) 중심으로 구성함
- 공동홈 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건강·영양관리 등 교육 운영
- 공동홈 운영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사례 학습
- 공동홈의 개념·목적, 공동생활에서의 가치와 원칙 등 운영에 필요한 가치 교육 및 실습 진행



**주민공동홈 시범운영(4월말 예정)**

- 시범운영진행 → 공동홈 생활의 긍정적 경험
- 매일 오전 건강체조와 같은 신체적 활동으로 정신적 안정을 도모
- 고령자 세대들의 치매 예방,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동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추후 마스터플랜 수립에 결과 반영

사회혁신실험 프로그램



- (예: 한살림 돌봄사협 인큐베이팅, 의료사협설립, 지자체 협력 요양원 설립 준비)
- 마을 활동가, 마을 앵커 조직, 네트워크의 도전

## 6. 정부/ 지자체의 역할

- 자율/자치를 해치지 않는 지원과 투자
-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사회적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 지역의 자본 투자.: 복지 예산, 기금, 지역사랑 기금, 신협 투자 등
- 설립 및 성장 지원 : 사람을 기르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 건강 조례 제정
- 제도변화: 인증제도, 인센티브,
  - 기본교육-> 심화 교육 이수에 따른 단계별 인건비 책정 또는 인센티브 설계
- 보편적 가치재 실현: 문서로 까다로운 빈곤을 증명하는 신청주의 개혁 필요
- 설립 인가, 감사제도 개선

